

MONT
BLANC



Pioneering since 1906.
For the pioneer in you.

1906년부터 이어온 개척 정신,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110년 동안의 개척 정신을 기념하여
아르누보 모티브로 재탄생한
헤리티지 컬렉션 루즈 앤 느와는
몽블랑 초기 만년필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montblanc.com/pioneering.
Crafted for New Heights.



Style

조선일보

JULY 2016 vol.143



cartier.co.kr

Diamond Collection

Cartier



www.chanel.com

L'INSTANT
CHANEL
THE CHANEL MO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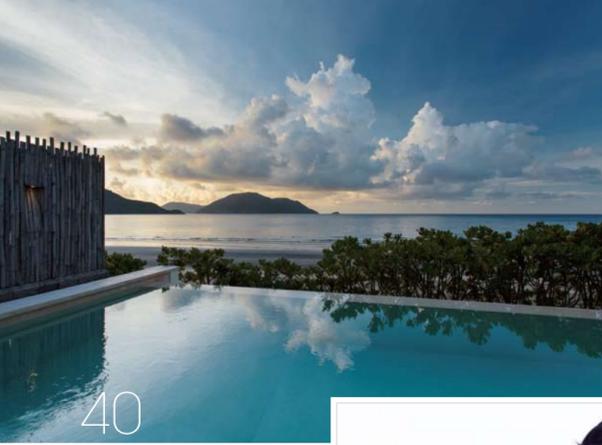
© ELSA PERETTI 2016. PHOTOGRAPH BY HIRO.

Endlessly Brilliant, Eternally Modern
ELSA PERETTI™ DIAMONDS BY THE YARD™

Elsa Peretti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TIFFANY.KR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30개의 브랜포인트 컷 다이아몬드 총 1.367캐럿, 48개의 비케트 컷 다이아몬드 총 2.14캐럿로 10.33캐럿의 메인 스톤을 장식, 궁극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스스피로 링(SOSPPO RING), 특별하고 화려한 스톤을 수장하는 까르띠에의 새로운 하이 주얼리 다이아몬드로 절대적이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문의 1566-7277



18



10

- 12 **질투 뒤에 숨은 여러 얼굴, 긍정의 역할 이끌어내기** 질투라 불리는 미묘한 감정은 영혼을 괴롭혀왔다. '악한 과물' 취급을 받기는 했지만 질투는 인간의 본성이며 인류 진화의 요소이기도 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 14 **SUPER SURFACE** 견고함과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매력적인 소재인 세라믹 워치 컬렉션.
- 16 **SUMMER BREEZE** 당신을 드넓은 바다와 푸르른 초원으로 인도해줄 서머 향수 컬렉션.
- 18 **MATCH PLAY** 지금, 당신을 설레게 하는 스타일. 빅 브랜드의 키 룩(key look), 그리고 잇백(it bag).
- 26 **THE ENERGY STARTER** 라 메르의 '트리트먼트 로션' 하나면 모든 서머 스킨케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 27 **INTENSE HYDRATION** 최초로 화장품 분야에 미세 유체 공학을 적용한 샴푸! 선보이는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과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젤'이다.
- 28 **ABSOLUTE LUXURY** 보네가 베네타 하우스가 탄생한 비밀스러운 도시, 이탈리아 비첸차를 찾았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자연과 보네가 베네타의 세계, 그리고 그들의 향미 여정을 고스란히 담은 특별한 향수 6개를 만났다.
- 30 **MOISTURIZING MASTER** 클리안스 맨에서 선보이는 '프레쉬 &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
- 32 **EDITOR'S PICK**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바캉스 필수 뷰티 아이템.
- 33 **REAL EXPERIENCE** 차면박화장품에서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스킨케어 이상의 리얼 엑스퍼-코즈메틱 브랜드 CNP Rx를 출시했다.
- 34 **THE POWER OF EMOTIONAL INNOVATION** BMW 뉴 7 시리즈 캠페인의 일환인 'Progressive 7',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배우 최민식에 이어 두 번째 리더로는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이 선정됐다.
- 36 **SANDAL SCANDAL** 수영복에도, 우아한 비치 드레스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서머 샌들 컬렉션.
- 37 **THE OCEAN COMMITMENT**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를 선보인 블랑팡의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전시.
- 38 **WALK THE SUMMER** 품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름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남성용 서머 스트랩 샌들.
- 39 **BLACK AND WHITE WEEK** 매년 몽블랑의 신제품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블랙 앤드 화이트 워크'가 올해는 브랜드 창립 1백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DREAM BOUTIQUE** 까르띠에 플래그십 부티크가 까르띠에 매중 창담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웅장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롭게 오픈했다.
- 40 **SLOW LIFE IN PARADISE** '식스센스 콘다오(Sixsenses Con Dao)' 리조트에서 보낸 꿀 같은 3일, 진정한 휴식과 재미를 경험한 이곳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 지금 펼쳐진다.

Style 조선일보

Issue.143 July 2016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혁신과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PRADA



Jewel SILVERY LIGHT
은은히 반짝이는, 피부와 닿을수록 진정한 내 것이 되는 실버 주얼리 컬렉션.

(위부터 아래로) 블랙 옻칠과 옐로 재스퍼가 실버 체인을 더욱 빛나게 하는 네크리스 59백만원대, 달의 얼굴 모양을 음각으로 새긴 세바퀴 컬렉션 브러시슬릿 4백만원대 모두 **에르메스**, 마카 미우스 참이 달린 디즈니 컬렉션 브러시슬릿 60만원대 **핀도라**, 리턴 투 티파니 메카지가 각인된 서클 엣지 컵 60만원대, 무한대 기호에서 영감을 받은 인피니트 컵 60만원대, 2개의 매듭으로 장식한 인피니트 더블 컵 70만원대 모두 **티파니**, 에디터 **베버진**



Fashion COOL AND CLEAR

차이운 영음과 같은 시스루 아이템은 보편 해도 당상의 체감온도를 확 낮춰줄 것이다. 투명한 아크릴과 PVC 소재 등 인기 찬이 비치는 클리어한 아이템. (맨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서로 다른 컬러와 패턴으로 디자인한 플라워 모티브 네크리스 168만원대 **에센셜**, 투명한 레드 색상의 PVC 소재로 프렌치 디테일을 완성한 샌들 80만원대 **루퍼트 샌더스 by 분더스**, 빈티지 크리스탈로 포인트를 준 클러치 49만원 **스튜어트 와이즈먼**, 목 쓰는 탄산처럼 스파클링한 매력의 박스 클러치, 20x10cm, 26만원 **김 라가렛트**, 투명한 프레이밍의 투 브리지 선글라스 70만원대 모두 **티파니**, 슈트 라인에 투명한 PVC 소재를 적용한 스타일레드 힐 가터 **마이클 코어스**, 에디터 **이재민**



Beauty UNDER THE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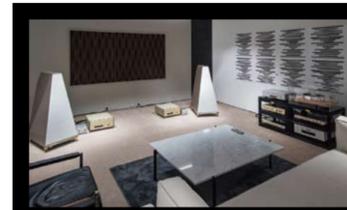
하와이의 뜨거운 햇살을 받은 듯 건강한 색채를 구획한 피부로 변신하는 일, 그리 어렵지 않다. 선 베드에 누워 오랜 시간 피부를 태우지 않아도 고고 예쁜 태닝 피부를 연출해줄 브라운팅이 바로 여기 있 으니까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5가지 매혹적인 브라운팅 세트로 구성된 **비비 브라운팅 하이 브릭 캠프**는 페이스 블렌더 브러시로 57가지 컬러를 한 번에 풀어 얼굴 전체 혹은 양 볼에 바르면 반짝이는 광채가 흐르는 건강한 피부를 연출할 수 있다. 또 각각의 컬러는 아이섀도 브러시로 눈꺼풀이나 생가풀 라인에 바르면 세미 스키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으니 알사조 (아이섀도) 10.3g 688만원 대에 **베네딕트 제로 렌 라인**은 부드럽고 끈적임 없는 로션 타입의 보디 브라운팅, 제품을 효과적으로 바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내장되어 손에 묻히지 않고도 편리하게 색채를 구획한 피부로 변신할 수 있다. 피부에 착 달라붙어 웃어 줄어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려 12시간 동안 지속되어 숨나뉘게도 지워질 염려가 없다(147ml 4만3천원). 대량하고 아름다운 화이트 & 골드 컬러 패키지가 눈길을 사로잡는 **폼 토퍼 뷰티 플러이 컬렉션 브라운팅 파우더**는 부드럽고 실효한 파우더 질감의 브라운팅, 특별한 미네랄 블렌드 포뮬러와 독창적인 섀도우 컬러를 더해 과하지 않으면서 피부 본연의 컬러와 빛을 살려준다. 태라, 브라운 에이지, 골드 다스트 등 총 3가지 컬러로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정도 매력적이 다(21g 11만원). **빅 브라운팅 파우더**는 태닝한 피부를 더욱 건강해 보이도록 얼굴에 은은한 구멍처럼 입 하주는 페이스 파우더. 미세한 입자의 매트한 핑크색으로 얼굴 전체, 목 라인, 쇄골 등에 가볍게 터치 하면 태닝 피부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또는 광대, 턱 선에 세로 방향으로 가볍고 입체적인 윤곽 메이 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10g 3만9천원). **나스 모이 바디 클로우 | 브라운팅 바디 오일**은 모이 드 타히티 오일, 타이레 꽃, 천연 코코넛 오일과 풍부한 초콜릿 필을 블렌딩해 피부 진정 및 보습은 물론 깊고 그윽한 태닝 피부를 선사한다. 피부에 고소스러운 컬러, 부드러운 향연을 부여해 탄력 있으면 서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75ml 8만6천원). 구멍처럼 피부를 더욱 톤하게 하고 싶다면 따스한 광채를 담은 애플 컬러의 **시슬리 워터 옹골 클로우**를 눈꺼풀 아래에 섀도우 발라볼 것. 75%에 달하는 아미노산과 보습을 함유해 눈가에 영롱하게 반짝이는 빛을 선사하며 뽀얀 눈에 살포시 얹은 듯 부드러운 질감이 돋보인다. 만약 전체적으로 비끼기 싫다면 컬러가 부담스럽다면 아이리나로 활용해도 예쁘다(1.4g 5만2천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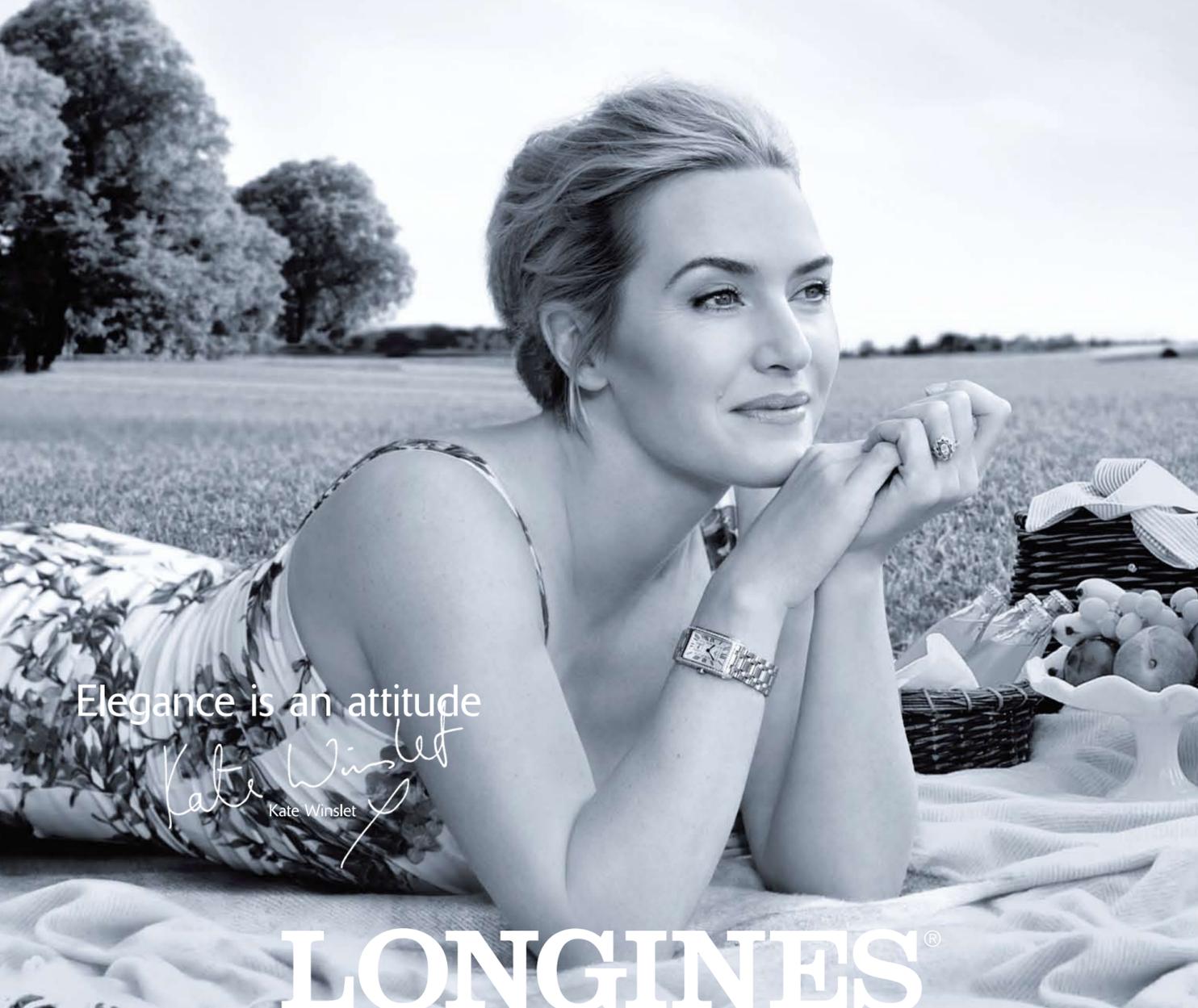
Design 일상을 감싸는 명품 테이블웨어 열풍, 식용경을 업그레이드하다

라이프스타일이 숨 가쁘게 돌아갈수록 오히려 식탁에서의 낭만을 더 그리워하게 되는 듯하다. 기품 어린 명품 테이블웨어가 인기를 누린 역사는 한국에서도 꽤 오래됐지만 요즘도 그 인기는 건재하다. 특히 몇몇 유럽 도자기 브랜드의 열풍은 꽤나 거세다. 식용경을 업그레이드하는 매력적인 테이블웨어 브랜드의 신제품을 소개한다. 먼저 요 몇 년 새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덴비(Denby), 스톤웨어의 본고장 영국 더비셔에서 탄생해 2백 년 전통을 자랑하는 이 브랜드는 한국 시장에서 얻은 인기에도 힘입어 지난해 12월, 영국, 미국에 이어 세 번째다. 자연미를 특징으로 한 디자인으로 덴비홀릭을 가느라 이 브랜드는 세부 단계가 백20개나 될 만큼 제작 공정이 까다로운 타라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지 않는데, 이번에 은은한 색감과 깔끔하면서도 따스한 질감이 돋보이는 '내추럴 캔버스(Natural Canvas)' 라인을 한국 시장에 처음 선보였다. 1960년대를 대표하는 '셰브론(Chevron)' 패턴과 소비하지만 유려한 동양풍 식기에서 영감을 받은 제품군 이라고, 한식에 어울리는 밥 공기, 국 공기, 찬기부터 얇은 파스타 볼까지 20종 이상의 실용적인 구성을 갖췄다. 영국의 전통 깊은 브랜드 웨지우드(Wedgewood)에서는 '여왕의 도자기'라는 상징성을 내세우는 '퀸즈웨이 론칭 2백50주년'을 기념해 '블루버드(Blue Bird)' 컬렉션을 새롭게 내놓았다. 하늘색, 아쿠아, 사파이어, 인디고 등의 색조 구성으로 웨지우드만의 우아한 블루 톤과 유사 깊은 아카이브에서 가져온 새, 새 디자인 패턴이 인상적이다. 덴마크 왕실 도자기 브랜드 로얄코펜하겐도 독특한 손잡이가 눈길을 끄는 하이 핸들 컵을 선보였다. 크릴과 블루 색상의 조합이 은은히 눈길을 사로잡는 블루 엘레먼트(Blue Elements) 컬렉션 라인의 제품, 그리고 백색 자기의 깔끔함이 돋보이는 화이트 엘레먼트 라인의 제품 등 2종. 덴마크의 저명한 디자이너 루이스 칸벨과 협업해 탄생시킨 이 브랜드의 베스트셀러라고, 에디터 **고성연**



Living 궁극의 소리 마하, FM 아쿠스틱스 소름 오븐

오묘마, 카스 자렛, U2, 레이 찰스, 오지 오스본 등 클래식과 락을 막론하고 세계 우수 뮤지션들의 사랑을 받아온 스위스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FM 아쿠스틱스(FM ACOUSTICS)를 제대로 접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제이메스 하우스에 들어선 FM 아쿠스틱스를 위한 전용 쇼룸이 서울에 자리 잡았다. 음악가 집안에서 자란 마우엘 후버가 1973년 설립한 이 브랜드는 빈티지와 하이엔드의 정점을 겸비했다는 아날로그 기반의 명품 오디오다. 10억원을 훌쩍 넘는 고가의 제품이 대부분이지만, 최근 출시된 FM 아쿠스틱스 '소름 오븐'은 3~4백만 원대 가격에, 마치 녹음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었다. 소름 오븐을 기념해 몸소 방문해 가려 한 후, 오메타 등 자신이 고른 다양한 음악을 들려준 후 최상의 말차침 눈을 지긋이 감고 소리를 감상하느라 낭만적인 음식도 그렇지만 오케스트라의 각 파트가 어디쯤인지 상상이 되는 듯한 '이미지' 효과가 대단하다. 스텝이 있는 레코드를 올려놓으면 감쪽같이 '화북'된 소리를 들려주는 디코딩과, 디코딩 가능도 흥미롭다. 한번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포로가 되어버린다고 말할 정도로 독특한 미학을 지녔다는 이 오디오 소리를 직접 들어보고 싶다면 사전 예약을 통해 청음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 쇼룸을 운영하는 오디오 갤러리는 최고의 디자인 기반 오디오 브랜드인 골드문트 쇼룸도 별도로 꾸리고 있다. 문의:02-517-9082 에디터 **고성연**



Elegance is an attitude
Kate Winslet
Kate Winslet

LONGINES®



Longines DolceVita

론진 부티크 | 신세계 본점 02 310 1597 롯데 영등포점 02 2164 5194 AK플라자 수원점 031 240 1123 현대 판교점 031 5170 2186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경기점 센텀시티점 의정부점 충청점 아워패션 롯데월드몰 코엑스몰 |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 롯데면세점 본점 코엑스점 부산점 제주점 신라면세점 본점 제주점 인천공항점 | 신라이아파트점 갤러리아면세점 63 | 동화면세점 | 엔타면세점



스트랩이 143cm에 매치해 백으로도 활용 가능한 GG 무늬를 기본으로 남성용 플러시백, 33x25cm, 1백55만원부터 구매.



타키 블루 컬러로 포인트를 준 투 브리지 레오파드 프린트 선글라스 38만5천원 **만다 페로우 by 한옥금리.**



파인애플 프린트와 이국적인 레오파드 패턴을 결합한 남성용 슬리퍼 1백20만원 **비행노.**



시원한 아자수 잎과 꽃이 만개한 하와이인 프린트의 남성용 스웨트셔츠 1백34만원 **구피.**



나비의 움직임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프린트가 인상적인 남성용 팬츠 99만원 **돌체앤가버나.**

Selection

강렬한 태양의 기운이 느껴지는 비비드한 컬러와 과즙이 흐르는 상큼한 과일, 이국적인 플라워 모티브를 가득 담은 트로피컬 무드의 남녀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클러킹한 리본 장식이 포인트인 여성용 라피아 백 60만원 **에르메스.**



오묘의 돌출 연상시키는 형태가 돋보이는 남성용 반지갑 99만원 **루이비통.**



선 드레스나 맥시드레스 등 바지 웨어에 포인트가 되어줄 플러시 넥글라스 1백19만원 **랑방.**

샤넬리스트 유행형 아스트로트 이세팅, 갈수빈 에티에 권유진, 이자현



비릿속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거대한 산호초를 떠올리게 하는 원피스 99만원 **돌루걸.**



투명 프레임에 레드 도트 프린트를 더한 선글라스 21만5천원 **카메인.**



강력한 무늬가 포인트인 장사한 여성용 팔찌를 120만원 **사차셀라.**



비강수 필수 아이템인, 향형색상의 달실로 꾸민 스트로 백, 25x33cm, 55만원 **마카렐스파도니 by 무이.**



속이 흰색 비치는 시스루 소재에 앙증맞은 꽃 장식을 더한 여성용 가죽 미팅 슈투트 1백10만원 **아이존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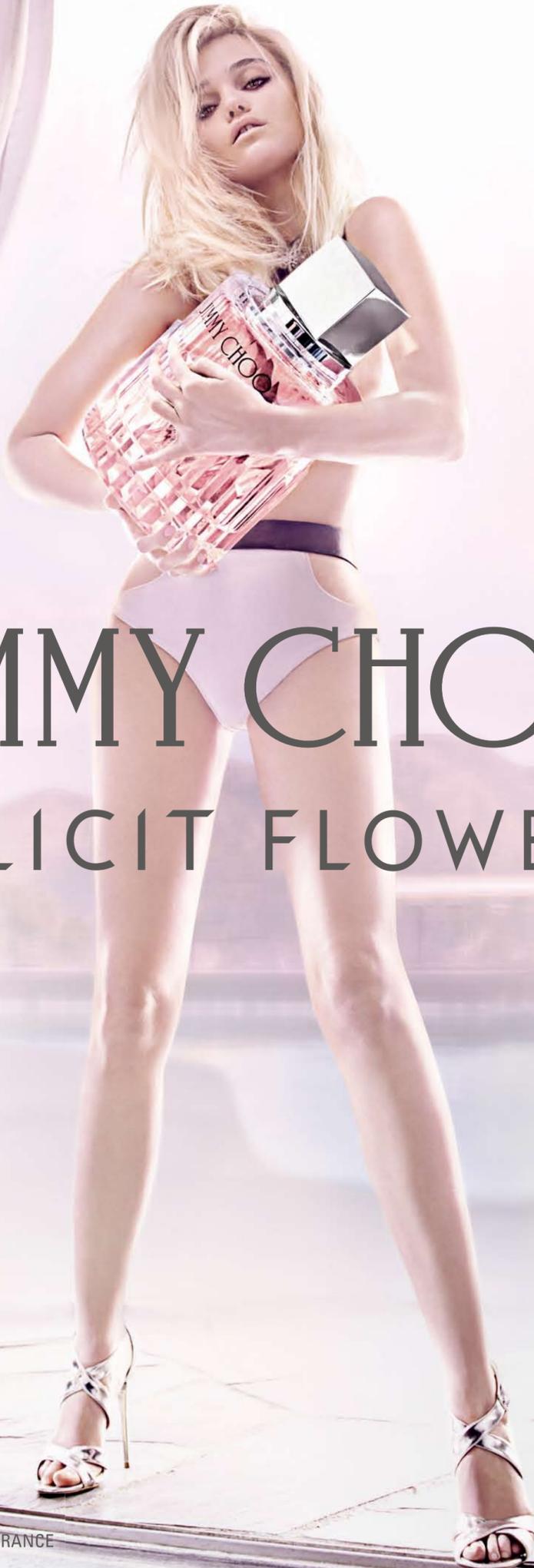
서늘한 계절 동안에 편안함을 담수 있는 트로피컬 패턴 연가버 by 무이.



무릉도원 같은 이국적인 풍경이 데칼코마니로 펼쳐진 스웨트셔츠 1백39만원 **디스케이드2.**

지바추 일리시 플러시 수안원 (주) 코의 080-800-8809

JIMMY CHOO ILLICIT FLOWER



SKY FERREIRA
FOR THE NEW WOMEN'S FRAGRANCE
JIMMYCHOO.COM/ILLICIT

- 구피 1577-1921
- 빌렌타노 02-6905-3610
- 랑방 02-6905-3582
- 루이비통 02-3432-1854
- 에르메스 02-544-7722
- 블루걸 02-6905-3447
- 카메인 02-3444-0599
- 무이 02-3446-8074
- 한옥금리 02-514-9006
- 차차셀라 02-749-1264
- 돌체앤가버나 02-3444-0077
- 디스케이드2 02-3445-3107
- 스튜어트 와이즈엔 02-2118-6205



질투 뒤에 숨은 여러 얼굴, 긍정의 역학 이끌어내기

얼마 전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드라마 <표! 오혜영>의 여자 주인공 오혜영(일명 '홍혜영')은 등장 인물을 소개한 포스터에서 초록빛 블라우스를 입고 있다.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만 녹색은 영미권에서는 '질투'를 나타내는 색이다. 셰익스피어는 자신의 4대 비극으로 일컬어지는 <오셀로>에서 질투심을 가리켜 '녹색 눈의 괴물(green-eyed monster)'이라고 표현했고, 영어 관용구로 얼굴이 창백해지도록 심하게 질투한다는 뜻으로 'green with envy(jealousy)'라는 어구도 있다. 이에 대해 그리스인들이 질투를 하면 답답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바람에 얼굴이 초록빛을 띠고도 믿었던 데서 유래한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어쨌거나 <표! 오혜영>에서 평범하다는 맥락에서 '그냥 오혜영'으로 불리는 여자 주인공은 인간의 삶을 자주 괴롭히는 '질투'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다. 웬만한 '구박'에도 씩씩하게 버티는 발랄한 성격의 소유자이지만 사실 그녀에겐 이름이 같은 잘난 고교 동창에게 비교당하면서 열등감과 피해 의식에 시달리던 과거가 있다. 성인이 되어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나름 잘 살아가고 있다고 믿었는데, 하필 동맹이던 동창인 '예쁜 오혜영'으로 말미암아 결혼식 전날 퇴짜를 맞는 악재를 맞닥뜨리면서 다시금 고통받는 인물이다. 그러다 인생 시련으로 다가온 남자를 만나고, 부모의 따뜻한 사랑 덕에 차츰 극복해나가는 하지만, 그녀는 극 후반까지도 열등감 어린 질투심에 분노하고 괴로워한다. 게다가 알고 보면 '악연'으로 얽힌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들도 각기 질투심에 사로잡혀 극적인 사건을 벌인다. 드라마이기에 극단적인 설정일 수도 있지만 질투가 우리에게 삶을 멍들게 하는 '마음의 괴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결점으로 폄하하기엔 인간이라면 주든 받든 누구도 피해 가지 못하는 탓이기도 하다. 그래도 때로는 이 복잡미묘한 감정이 누군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한다. 어차피 피해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질투를 다스려 나의 힘으로 만들 수 있을까?

진짜 질투는 가까이 있다

질투는 자신보다 더 많은 걸 가졌거나 그렇게 보이는, 또는 그럴 수 있을 만한 사람에 대한 불만, 열등감, 분노 등이 뒤섞인 감정이다. 자칫 증오나 복수심, 탐욕 등으로 변질 수도 있다. <행통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저자는 히틀러가 사회 곳곳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대인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질투한 나머지 극단적인 탄압까지 하게 됐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는 바람에 건축가가 되고 싶은 자신의 어릴 적 꿈을 이루지 못한 것도 유대인들 탓이라고 생각했다고. 비록 히틀러 사례는 극단적이긴 하지만 질투라는 감정은 무수히 질책받고 경계시되어온 게 사실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질투

를 가리켜 '악마의 특징'이라고 했다. 지구촌 최고의 '큰손'으로 추앙받는 투자계의 제왕 워런 버핏은 자신의 회사 주주들을 위한 연례 회의에서 '7대 죄악'을 검토하도록 하는데, 그중에서 시기심을 가장 쓸데없는 죄악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죄악은 잠깐이긴 해도 약간의 즐거움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시기심만은 예외죠. 시기심은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늘 그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힐 뿐이지요." 그러면서 자신의 평생 조력자인 찰리 멩거를 두고 "그는 자신이 시기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행동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다. 그런데 멩거는 그저 드러내지 않고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 싶다. 질투심에 이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토머스 홉스나 장 자크 루소 같은 철학자들은 질투심을 인간이 기본적으로 지닌 성질로 봤다. 인간은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속성이 있고, 질투는 바로 이 '비교'에서 비롯되기 때문. 그래서 혹자는 질투를 유발하는 건 남들에 대한 경쟁심과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의 혼헝체라고도 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이들을 질투의 대상으로 삼기 쉽다. 인간에겐 이렇듯 자기와 비슷한 점이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까운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누리면 자신도 그럴 기질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때문이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있는 듯한 사람이라면 성공에 대해 조금 배 아파하거나 불행에 대해 은근히 즐거워하는 '행통 심리' 정도로 끝나지만, 가까운 이들을 질투하게 될 경우엔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 미국 소설가 고어 비탈은 이런 성향을 자신에게 빚어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친구가 성공할 때마다 나는 조금씩 죽는다."

질투가 꼭 쓸데없는 것일까? 긍정과 부정의 미학

그렇지만 우리는 대부분 질투를 드러내기를, 아니 인정하지조차 꺼린다. 학자들은 질투심을 타인에게, 심지어 자기 자신에게도 가장 고백하기 싫은 감정 중 하나로 꼽는다.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데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다만대로 질투를 받는 대상은 사회적으로 '존경'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그 점에 대해 신경 쓴다는 사실을 털어놓는 동시에 간절히 원하는 게 무엇인지 타인에게 공개하는 셈이 되니까 말이다. 그래서 인간은 질투라는 감정에 큰 위협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기도 한다.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질투처럼 소모적인 감정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감정 제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갖가지 감정을 만들어내는 건 인간

의 '뇌'인데, 뇌를 컨트롤하기 쉬운 리가 없지 않은가. 오늘날에는 적어도 감정 컨트롤에 도움이 될만한 기제가 많아졌다. 질투에 대한 해석이 훨씬 더 다양해졌고, 파괴적인 속성과 긍정적인 측면을 제시하는 전문가 소견 또한 풍부하다. <질투의 미학>의 저자 지그리트 앵겔브레히트는 질투심이 나타나는 모든 형태를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의기소침해 체념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후퇴형(우울형) 질투(depressiver neid), 상대가 누리는 지위를 박탈하고 자신이 그 자리에 오를 방법을 찾는 적대형 질투(feindseliger neid),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고 배우려 하면서 더 노력하는 선망적 질투(bewundernder neid)다. 흔히 파괴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적대적 질투는 '검은 질투', 상대방을 동경하고 축하해주면서 부러움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는 선망적 질투는 '하얀 질투'로 불리기도 한다. 예컨대 '팜의 여왕' 마돈나는 한 시대를 풍미한 가수 비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성공과 라이프스타일을 부러워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알려져 있다. '질투는 나의 힘'이 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질투가 인간의 본성일 뿐만 아니라 인류 진화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검은 질투에 불타는 이들은 나도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남도 가질 수 없다는 식의 위험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들은 상대에게 해를 가해서라도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의지가 강하므로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공감 능력이나 이해심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런 적대적인 감정에 이끌려 사회적 관계를 파괴할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질투에 대한 나쁜 선입견을 갖게 됐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타인의 견제나 적대심을 경계하면서 자연히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혹은 자신이 누군가를 시기하기보다는 질투를 받는 대상으로 비칠 수 있도록 으스스대기도 한다. 이는 자신을 향한 타인의 질투가 곧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중 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심리학자들은 지적한다.

우리가 정말 질투하는 대상은 '감정'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질투하는 진정한 대상은 따로 있다고 앵겔브레히트는 주장한다. 타인이 소유한 값비싼 물건이나 능력, 지위 그 자체보다 그것들을 소유한 사람이 지녔을 것이라 짐작되는 감정과 더 깊은 연관이 있다는 논리다. 그들이 누리는 기쁨, 만족감, 여유로움, 자존감의 상승과 같은 감정을 말이다. 본질적으로 그들이 지닌 장점 때문에 더 행복하게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타인의 진짜 감정은 알지도 못한 채 하는 추측일 뿐이다. 그냥 '그들은 저 많은 걸 누리고 있으니 행복할 거야'라는 생각으로 넘겨짚으

면서 자신을 질투로 몰아가는 것이다. <표! 오혜영>에서도 '그냥 오혜영'은 자신은 '예쁜 오혜영'이 뛰어난 외모와 두뇌의 소유자에 인기도 있으니 상대적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예단하면서 열등감을 느끼지만, 상대방의 진짜 현실은 알지 못했다. 모든 게 빛나 보이는 그녀에게도 나름대로 아픈 상처가 있고, 심지어 '그냥 오혜영'인 자신에 대한 열등감도 있었다는 점을 나중에야 알게 된 것이다. 인간의 질투심도 결국은 자신이 행복하고 싶은 바람과 욕구 때문일 셈이다. 이쯤에서 행복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지적하는 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인간의 행복이란 의외로 짧게 지속된다는 사실이다. '행복의 가치'를 연구한 대니얼 길버트를 위시해 행복 전문가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은 대부분 긍정적인 일이 이끌어내는 행복의 효과는 실제보다 훨씬 더 강할 것으로, 부정적인 사건의 부작용은 실제보다 훨씬 더 심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의외로 행복감은 짧게 지속된다고. 현실에서는 아무리 강렬한 사건도 3개월 이상 그 영향력이 지속되기 힘들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강력한 한 방보다는 소소해도 잦은 추억이 인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논리다. 이렇듯 남들처럼 행복하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질투가 솟는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므로 그런 감정 때문에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낄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질투심을 인정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 상대를 인정하고 감탄하면서 오히려 질투의 대상과 친해지는 식으로 '흰색 질투'로 승화하는 방법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자신의 질투심을 털놓고 말하면서 털어버리는 방법도 있다. 그와 동시에 나만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할 줄도 알아야 한다. 분명 사람의 가치는 저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일단 심리학자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안의 감정을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는 조언을 건넨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말이다. 자신이 어디서 행복과 만족을 느끼는지 파악하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질투하는 일이 훨씬 줄어들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질투를 기꺼이 인정하고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자신에게 걸린 것이 무엇인지, 욕구 내지 욕망이 무엇인지 감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대개 질투의 중요한 원인은 그것을 유발한 첫 번째 계기에 있지 않고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예컨대 스के치를 빼어나게 잘하는 누군가를 질투할 때는 사실 그처럼 스케치에 열정을 쏟아부를 수 있다는 점 자체를 부러워한다는 것이다. 나는 그처럼 헌신과 절제를 발휘할 일을 찾지 못해 부럽고, 괴로웠던 셈이다. 결국 과제는 내 자신이 행복한 일을 찾는 것이 아닐까. 그런 과정에서 다른 이가 가진 무엇인가가 정말 의미 있게 다가온다면, 그래서 진심으로 얻고자 노력한다면 그 때 질투가 '하얀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SI** 에디터 **고성현**

Super surface

신소재를 넘어 하이엔드 위치의 필수 소재가 된 세라믹, 견고함과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매력적인 소재인 세라믹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오메가 스피드마스터 문양 피치 블랙 윤기가 느껴지는 세라믹 베젤이 올 블랙 워치에 세라믹을 더해주는 오메가의 클래식 컬렉션. 달을 탐험하기 위해 이틀로 8초에 탐승한 우주 비행사의 업적을 기리는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 모델 중 하나로 다이얼 역시 매혹하게 처리한 블랙 세라믹이다. 오메가 코-엑스 일 컬러버 9300을 장착했다. 1천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워물로 클래식 퓨전 에어로 크로노그래프 블랙 매직 베젤부터 케이 스키까지 블랙 세라믹을 메인 소재로 사용한 블랙 매직 컬렉션.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셀프인딩 소용돌이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블랙 세라믹과 아우라지도록 워물로 고유의 패턴으로 완성도 있게 가공한 블랙 라퍼 스트랩을 매치했다. 2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사헬 J12 미러 화이트와 블랙 세라믹 소재를 럭셔리 소재로 사용해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사헬 J12 워치의 신제품 미러 컬렉션. 전세계 1천2백 파스 한정 수량으로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과 미러 컬러를 보이는 다이얼의 조합이 미래적인 느낌을 준다. 42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담은 셀프인딩 매캐-컬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6백만원대, 문의 02-3442-0862

사헬 J12 컬렉터 핑크 라이트 핑크 컬러를 더해 더욱 여성스러워진 화이트 세라믹 워치. 8개의 다이아몬드 세팅과 아랍 표시까지 가능한 핑크 컬러 숫자의 조합이 시련스럽다. 다이얼 사이즈 38mm로 여성 손목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이즈다. 스크래치에 강하고 색상 변화하지 않는 세라믹은 사헬 워치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소재가 되었다. 7백만원대, 문의 02-3442-0862

블랑팡 오션 커미언트 비티스킵 크로노그래프 플라자백 브랜드의 최신 무브먼트인 F985를 탑재한, 블랑팡 다이얼 워치의 60년 전통을 반영한 한정판 컬렉션. 표현하기 어려운 그레이 컬러의 세라믹 케이스에 세라믹 크라운, 세라믹 크로노그래프 푸셔를 더한 멋진 워치다. 가볍고 정교한 시계의 기능을 위해 세라믹 소재를 더했다. 43mm 케이스 사이즈로 기존 피피티 패킷즈 컬렉션 모델보다 작은 사이즈로 일상생활에 착용하기에 더욱 실용적이다. 2천3백만원대, 문의 02-6905-3367

오메가 씨마스터 다이버 300M 세라믹 소재의 역학적 방지 베젤을 장착한, 실용적이며 대중적인 컬렉션의 워치. 전문 다이버를 위한 워치하기에 10시 방향에 헬륨 가스 배출 밸브가 장착되어 있다. 41mm 다이얼 사이즈로 블루 컬러의 다이얼이 남성적인 매력을 더한다. 4백70만원대, 문의 02-511-5797 에터 베어린



“작품을 만날 때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매 순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대중에게 늘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싶은 것이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 할 때 혁신은 이루어지는 것 아닐까요? BMW 뉴 7시리즈도 같은 맥락입니다. 오랜 전통과 명성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기술력으로 다음 시대를 이끄는 BMW 뉴 7시리즈는 언제나 제게 깊은 영감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제가 BMW 7 SERIES를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summer breeze

특유의 특 쓰는 청량감과 싱그러움을 가득 머금은 향이 여름을 부른다. 당신을 드넓은 바다와 푸르른 초원으로 인도해줄 서머 향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틀 포드 만다리노 디 아말피** 보간 해도 휴양지로 출적 떠나고 싶어지게 만드는 푸른 빛깔의 보틀이 매력적이다. 그도 그럴 것이 틀 포드가 가장 좋아하는 휴양지인, 캄파니아에 위치한 아말피(Amalphi)의 따뜻한 기후를 스킨케어에 재해석한 향수이기 때문. 골목마다 레몬 나무를 키우는 지역 특성을 반영해 메인 노트로 레몬 스퀘아베르스 오일을 사용했으며, 만다린, 바질, 스페이민트 등 이국적인 여러 향이 뒤섞여 시트러스 과일과 토닉 같은 향을 파르르다. 50ml 27만원대, 문의 02-3440-2696

캄파니아의 피케이 원 샘머 여름마다 새로운 옷을 입고 찾아오는 피케이 원 샘머 에디션. 2016년 버전은 보간 해도 시원한 아자스 나뭇잎의 청량함을 실려 정글의 이국적인 무드를 담았다. 프레스시 시트러스 프루티 계열의 향으로 라임과 구아바 향으로 시작해 이국적인 그린 노트로 이어져다 스티우드로 은은하게 마무리된다. 100ml 7만3천원, 문의 02-6924-6572

프라다 레스 인퓨전 디 프라다 미모사 오데 파롬 지중해 연안에서 자라는 노란 꽃 미모사를 메인 노트로 사용한 향수. 처음 향을 맡았을 땐 로즈의 플로럴 향이 지배적이었던 정차 피우다라한 헬리오트로프 향이 강해져, 은은하게 뻗어 마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이번엔 미모사 클라임 노란색 보틀에 담았다. 100ml 15만5천원, 문의 02-3443-1805

에르메스 듀게 포슬린 에르메스의 13번째 향은 고귀한 은방울 꽃의 향을 담았다. 순수하고 섬세한 인상 뒤에 강인하고 신비로운 이미지를 지닌 은방울꽃을 표현한 향으로, 부드러우면서도 진중한 분위기가 느껴진다. 정통 가죽 브랜더들은 고유의 사들 스티치로 포인트를 준 초록색 가죽 캡과 보틀이 고급스러움을 한층 부각한다. 100ml 33만1천원, 문의 02-310-5174

앤디슨 마이 페어 릴리 릴리와 캐러틴 등 파퓰러의 가장 상징적인 원료들을 영감적인 위트와 에지를 담아 재해석했다. 영화 (마이 페어 릴리)의 여 주인공 오드리 헵번을 오마주한 향으로, 내추럴하고 순수하지만 매력적인 엘리자벳스향을 표현했다. 100ml 21만5천원, 문의 080-800-8809

조 말론 프렌치 라임 블루베리 강렬하면서도 파우더리한 라네 꽃에 베르가모트 향유 및 방울과 타라곤(사실)을 더해 요묘한 매력을 발하는 향으로 파리의 초여름을 표현했다. 아말피 특유의 달긴 크레파스 향이 느껴지기도 하고, 고급스러운 비누로 씻고 난 후 물에 은은하게 뻗어 향기도 한 이 향수는 전체적으로 은은하면서도 분명한 느낌을 준다. 초여름, 살짝 내린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뿌려보면 어떨까? 100ml 17만8천원대, 문의 02-3440-2750

프레쉬 헤스페리데스 그레이프프루트 오드 파롬 지중해 필두로 레몬과 오렌지, 복숭아 등 본연의 명료한 색채를 지닌 다양한 향의 시트러스 노트를 레이어링해 보다 강렬하고 지속력이 강하다. 레몬으로 밝고 신뜻한 첫 향을 선사하고, 여기에 오렌지와 자몽 향을 더해 달콤 씁쓸하고 시원한 향기를 느낄 수 있으며, 베르가모트 향과 휴제일이 우아하고 세련된 향을 연출해준다. 100ml 15만5천원대, 문의 080-822-9500

사베 베르 도 첫 향은 신맛이 연상되는 레몬 껍질과 탠저민으로 시작된다. 곧 이어 무화과 잎의 상쾌함에서도 느껴지는 그린 노트가 앞선 레몬 향과 잘 어울리며 화이트 플라워의 부드러운 향이 파노라마를 장식한다. 평소 여름철마다 프루티 계열의 보다 클렌징나 향수를 즐겨 쓰는 여성에게 추천하고 싶은 향. 그린의 에스클린 타일을 살짝 가미한, 그로윈 세련된 프루티 계열의 향수다. 100ml 14만8천원, 문의 080-6980-6989 에디션 **아지엔**

THE ALL-NEW BMW 7 SERIES. DRIVING LUXURY.

The all-new BMW 7 Series

Sheer Driving Pleasure

bmw7series.co.kr



BMW EFFICIENT DYNAMICS.

750Li xDrive 8.4km/l 450hp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 080-269-2200 BMW 공식 홈페이지 | www.bmw.co.kr BMW 페이스북 | www.facebook.com/BMWKorea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BMW 750Li xDrive 배기량 2,993cc, 공차중량 2,050kg, 차종 8단, 복합연비 12.2km/l (도시연비 10.7km/l, 고속도로연비 14.8km/l) 복합CO2배출량 157g/km, 3등급, 750Li xDrive 배기량 4,395cc, 공차중량 2,155kg (4,915kg/5,915kg), 차종 8단, 복합연비 8.4km/l (도시연비 7.1km/l, 고속도로연비 10.6km/l) 복합CO2배출량 209g/km, 5등급 *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은 해당 시리얼의 에너지이며, 모델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은 가까운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모델별 옵션 적용 사항은 가까운 BMW 공식 딜러 전시장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BMW 7 Series 마이크로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www.bmw7series.co.kr

나눔, 더 나은 미래의 시작입니다. BMW 코리아 미래재단

플라워 프린트와 플라츠 디테일이
 여성스러운 슬리브리스 드레스, 블랙
 레더 벨트, 크리스탈 장식을 가미한
 토트백, 플라워 패턴의 스타일레토 힐
 모두 가격 미정 마이클 코어스 컬렉션.

MATCH PLAY

지금, 당신을 설레게 하는 스타일.
 빅 브랜드의 키 룩(key look), 그리고 잇 백(it bag).
 photographed by jang duk wha



올 캐시미어 소재의 레지덴털 재킷 가격 미정, 강렬한
 파이톤과 플라워 패턴 프린트가 조화를 이루는 실크
 크레이프 드레스 가격 미정, 목걸이처럼 연출한 블루 컬러의
 스네이크 레더 백 3백20만원대, 다양한 컬러의 파이톤
 프린트를 패치워크한 스네이크 레더 백 3백20만원대,
 블루 컬러 스네이크 레더 앵글부츠 가격 미정 모두 비버리.



러플 디테일이 돋보이는 버건디
 컬러 미니드레스 2백68만원,
 핑키 트와주르 백 2백82만원,
 레이스업 가방 스트랩 1백17만원,
 핑크 컬러 시어링 플랫폼 슈즈
 1백38만원 모두 핸드.



도트 패턴 테일러드 재킷과 팬츠,
 베이비 핑크 컬러 스티레토 힐,
 건축적인 디자인이 모던한 느낌을
 주는 골드 컬러 디올라마 백, 클래식한
 짐공정치가 돋보이는 디올라미 클러
 백, 실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블랙 & 화이트 체크 패턴의 슬림 드레스, 체크 패턴 밴드, 가죽 소재 플랫슈 부츠, 골드 컬러 초커 네크리스, 다양한 패턴을 이어 붙인 로고 플레이 시티 스타머 토트백, 멀티컬러 스트라이프 패턴을 다한 밴디 말 클러치 모두 가격 미정 **루이비통**.

레드 스트라이프 롱 슬리브 미팅, 밧줄 디테일을 가미한 레드 스트라이프 롱 드레스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의 편칭 토트백 1백38만원 모두 **만스아라**, 왼쪽 구에 착용한 미러 장식 이어링 14만원, 오른쪽 구에 착용한 구조적인 디자인의 실버 이어링 8만원 모두 **남바링**, 매달려한 오픈토 하이힐 1백28만원 **주세페 자노티**.





셔츠를 레이어드한 듯한 소매 디테일이 돋보이는 캐시미어 티셔츠 1백63만원, 브라운 컬러 스웨이드 팬츠 5백43만원, 숄더 스트랩을 달아 크로스 백으로 연출한 클러치 2백57만원, 딥 그레이 컬러 토트백 4백97만원 모두 **브루넬로 쿠치넬리**, 블랙 앵글 스트랩 샌들 1백40만원대 **로저 비비에**.

레더 패치워크를 더한 스트라이프 셔츠 3백20만원대, 편칭 레더 스카트 가격 미정, 패치워크 스트랩 샌들 95만원대, 레이저 커팅으로 완성한 웨이브 백 2백90만원대, 아이보리 컬러의 더블-T 백 2백20만원대 모두 **토즈**.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최사노
 모델 강소영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루이 비통 02-3432-1854
 만스미라 02-3467-8326
 넘버링 070-7561-6794
 주세레 자노티 02-543-1937
 버버리 02-3485-6536
 마이클 코어스 칼락션 02-546-6090
 토즈 02-3438-6008
 다들 02-3480-0104
 켄디 02-2056-9022
 브루넬로 쿠치넬리 02-3448-2931
 로저 비비에 02-6905-3370

라 메르, 기적의 헤리타지 스토리

기적의 크림, 하이엔드 크림의 시조로 유명한 브랜드인 라 메르의 베스트셀러에는 제품명 외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씩 존재한다. 바르자마지 느껴지는 드라마틱한 효과와, 오래도록 매이즘을 형성한 프리미엄 브랜드의 가치가 여러 사람들의 입소문을 탔기 때문에 아닐까? 지친 피부를 단 8분 만에 에너지 업시켜준다 해서 '8분 에너지 마스크'라 불리는 라 메르 인텐티브 리바이탈라이징마스크와 기적의 크림이라는 애칭이 있는 '크림 드 라메르', 그리고 코드명 '활력 에너지 스타터'라 불리는 라 메르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워터 에센스 '트리트먼트 로션'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다. 이처럼 라 메르를 하이엔드 스킨케어 브랜드 중에서도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은 이 모든 제품을 아우르는 핵심 성분은 미라클 브로스다. 약 반세기 전, 우주항공 물리학자이자 라 메르의 창시자 맥스 휴버 박사는 실험 중 사료로 생긴 피부 손상을 스스로 개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무려 12년 반 동안 6천여 번의 실험을 거듭한 끝에 놀라운 피부 개선 효과를 갖춘 기적의 성분을 발견하게 된다. 라 메르의 핵심 성분인 미라클 브로스가 바로 그것. 바다의 무한한 에너지를 담은 황금빛 완역, 미라클 브로스는 캘리포니아 해안의 청정 해역에서 찾은 해초를 일일이 손으로 채취한 다음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식물에서 추출한 에센셜 오일과 함께 3~4개월간 저온에서 빛과 소리 에너지를 통해 생양호시켜 않는 귀한 성분이다. 하루에 60cm 이상 지리온 해초의 무한한 생명력과 보습과 윤결, 광채, 진정, 개선 등 다섯 가지 효과를 피부에 전달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한마디로, 피부를 가장 자연적인 상태로 되돌려 피부 세포 간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것.

크림 드 라 메르와 함께 라 메르의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트리트먼트 로션은 여름이면 더욱 사랑받는 워터 에센스다. 이 트리트먼트 로션 한 병에는 미라클 브로스를 포함해 라 메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개발한 세 가지 테크놀로지를 모두 담았다. 두 번째 기적의 성분이라 불리는 리바이탈라이징 퍼먼트 사하라 사막의 극한의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해 땅속에는 죽은 것처럼 긴 휴면 상태를 유지하지만 단 한 방울의 물만 흡수해도 완벽하게 되살아나는 단세포 해초 세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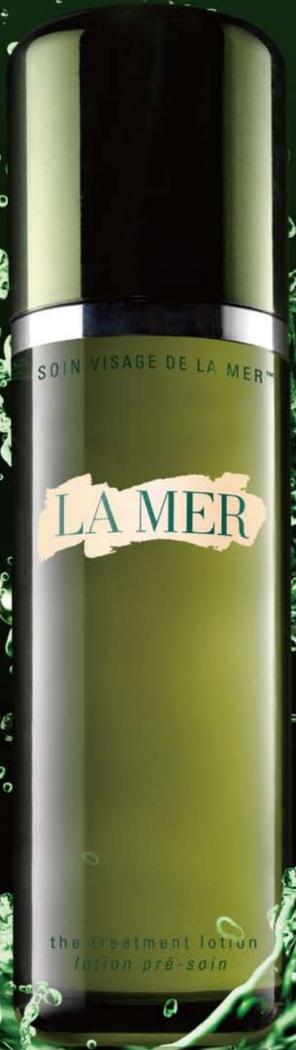
데스무스와 7가지 해양 광물을 함께 발효한 성분이다. 이와 함께 라 메르의 특허 성분이기도 한 소프트닝 워터가 트리트먼트 로션에 고급스러운 터치를 더했으며, 텍스처는 가볍지만 성분과 기술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 라 메르의 정수를 담은 제품이라 할 수 있다.

피부를 깨우는 에너지저

아침 햇살에 자연스레 눈이 떠지듯, 라 메르 트리트먼트 로션은 여름철 생기를 잃은 피부를 깨우는 일괄 역할을 한다. 활력 에너지 스타터라는 애칭 그대로 스킨케어의 첫 단계에 사용해 피부 깊숙이 수분과 영양을 즉각적으로 전해 에너지와 활력을 일깨우는 것. 또 건조한 피부를 즉각적으로 유연하게 해주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렇게 말하면 지친 부스틴 에센스를 착각하기 쉬우나, 면밀히 따져보면 오히려 퍼스트 에센스에 가깝다. 부스터가 다음 단계의 제품 흡수를 돕는 보조적인 역할이라면, 트리트먼트 로션은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종받을 정도로 비르자마지 에너지와 수분을 충족시켜 피부를 깨우고, 다음 단계에 비르는 모든 스킨케어 제품이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피부 속을 여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 점성 있는 스킨 타입의 심각한 텍스처는 부드럽게 흡수되며 피막결을 잘 못 하는 것은 물론, 피부 탄력까지 향상시킨다. 모든 피부 타입에 부담 없는 워터 텍스처라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클렌징한 뒤 화장실에 트리트먼트 로션을 듬뿍 적셔 피부 속 깊숙이 제품을 밀어 넣는다는 기본으로 지르시 누리며 흡수시킬 것. 그런 다음 메인 에센스나 부스팅 에센스를 바르면 된다. 수분 충전과 동시에 콜링 효과를 보고 싶다면, 트리트먼트 로션을 적신 화장솜을 피부 위에 올려두어 충분한 에너지 보충과 피부 리프라이징 효과를 얻으면 된다. 지치고 활력을 잃은 피부가 고민이라면 지금 당장 라 메르 로션 트리트먼트로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길. 150ml 18만 원대. 문의 02-3440-2775 **에디터 권유진, 이자현**

the energy Starter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 메르(La Mer)'는 워터 에센스도 남다르다. 영양과 보습이 부족한 부분을 푹푹하게 찾아내 라 메르의 핵심 성분 미라클 브로스의 풍부한 영양과 에너지를 채워준다. 라 메르의 '트리트먼트 로션' 하나면 모든 서머 스킨케어 고민이 해결될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허보>와 라 메르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가지고 럭셔리 스킨케어 브랜드 라 메르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라 메르의 에너지 스타터 워터 에센스 '트리트먼트 로션'을 체험해볼 수 있는 샘플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라 메르 트리트먼트 로션 5ml ◆ **기간** 2016년 7월 6일(수)~7월 17일(일) ◆ **문의** 02-3440-2775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입구점, 코엑스점, 판교점, 목동점, 대구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본점, 부산 센텀시티점, 롯데백화점 본점, 잠실점, 갤러리아백화점 입구점, AK몰라지백화점 본점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일' 및 '회' 선착순으로 고객 등록시 증정됩니다.

혁신적인 기술이 탄생시킨 차원이 다른 보습력

올여름, 물에 흠뻑 젖은 듯 수분으로 차오른 피부를 만들기 위한 비법은 고차원적인 기술력과 성분으로 늘 상상 그 이상의 피부를 선사하는 샤넬 코스메틱이 쥐고 있다. 지난해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의 인기에 힘입어 건조하고 칙칙한 눈가를 개선하는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젤 아이'를 선보이는 샤넬은, 업계 최초로 미세 유체 공학을 화장품에 적용해 얼굴과 눈가에 차원이 다른 보습력을 선사한다. 생물학, 정밀 화학, 의학 등에서 주로 응용하는 이 첨단 과학기술은 모든 종류의 액체를 매우 작은 단위에서 통제된 방식으로 조작하는 정교하고 고차원적인 기술. 샤넬 연구소는 섬세하고 작은 피부 세포조직에 유효한 성분이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화장품에 이 테크놀로지를 접목했다. 그 결과가 바로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과 젤 아이에 함유된 까멜리아 알바 OFA 마이크로 버블이다. 이는 강력한 수분 공급을 도와줄 특별한 활성 성분인 까멜리아 알바 PFA와 항산화 작용을 하는 블루 진저 PFA를 결합한 것으로, 건조한 피부는 물론 잔주름이 쉽게 생기는 눈가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준다. 특히 이번에 출시하는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젤 아이는 눈가 부기와 다크서클에 집중적으로 작용하는 농축 활성 성분을 함유했으며, 마이크로 펩티드 복합체 성분이 배수 작용과 미세 순환을 촉진해 눈가에 생기와 활력을 선사한다.

물에 흠뻑 젖은 듯한 피부와 생기를 되찾은 눈가

샤넬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과 젤 아이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새롭고 독특한 텍스처다. 쉽게 퍼지거나 흐르지 않으며 점성이 느껴지는 수성 텍스처로, 손으로 문지르면 물처럼 변하면서 피부가 흠뻑 젖은 듯 촉촉해지는 것. 마치 오일막을 씌운 듯 부드럽게 마무리되고 끈적이거나 걸들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24시간 유지되는 보습 효과로 아침에 바른 후 시간이 지나도 피부가 메마르지 않으며 속까지 수분 폭탄을 채운 듯 피부에 은은한 물방이 감돈다는 점도 단연 돋보인다. 더불어 햇볕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부가 자극받았을 때 수분 팽처럼 돕뻑 발라주면, 피부의 열기와 붉은기가 눈에 띄게 진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과 젤 아이를 함께 사용했을 때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 젤 아이의 경우 사용 직후 수분 레벨이 76%, 24시간 뒤 수분 레벨이 23% 유지되고, 한달 사용 후 피부의 편안함 지수가 53%, 피부 광채는 23% 증가했으며, 잔주름의 경우 18% 감소한 것을 임상 실험 결과 확인했다. 닿는 순간 깊숙한 곳까지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에 수분을 꽉 채워주는 까멜리아 마이크로 버블의 힘을 빌린다면 올여름 당신의 피부는 메마름 틈이 없다.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 30ml 12만8천원,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젤 아이 15ml 8만8천원. 문의 080-332-2700 **에디터 권유진**



intense Hydration

투명한 보틀 속, 수분으로 가득 찬 몽글몽글한 수천 개의 마이크로 버블이 보이는가? 최초로 화장품 분야에 미세 유체 공학을 적용한 샤넬이 선보이는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세럼과 '이드라 뷰티 마이크로 젤 아이' 속 마이크로 버블이 올여름, 메마른 피부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준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moisturizing Master



스스로 부터 트랜드에 민감하다고 느끼는 남자라면 이 기사를 주목할 것. 맑고 건강한 피부가 남성의 경쟁력이 된 요즘, 클라란스 맨에서 선보이는 '프레쉬 &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가 무더운 여름철 남성 피부를 위한 오아시스가 되어줄 테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양날의 검과도 같은 '물'로부터 피부를 지키다

여성 못지않게 피부를 가꾸는 남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부드럽고 촉촉한 피부를 위해 주의해야 할 것은 놀랍게도 '물'이다. 세이빙, 물 세안, 운동 등 유독 물과의 접촉이 잦은 남성 피부를 물로부터 지켜주는 것이 관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도물은 피부에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모든 물이 피부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물에 함유된 미네랄 농도가 높을수록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다. 미네랄 입자는 아주 작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위에 불필요한 막을 형성하고 표면을 건조하게 만들어 피부를 손상시키기 때문. 땀과 피지 분비량이 많은 남자들은 특히 여름철 물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기에 클라란스 맨에서는 물이 피부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남자의 피부를 지키는 스킨케어 제품을 탄생시켰다. 바로 프레쉬 모이스처 토너와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가 그 주인공. 이 두 가지 토너의 포뮬러에 함유된 강력한 식물 성분들이 함께 작용해 수도물이 피부에 가하는 손상을 막고, 세포 에너지를 증진하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한다. 이 제품에는 피부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클라란스 맨의 핵심 성분인 바이슨 그라스와 더불어 피부 속 에너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짐네마 추출물, 그리고 이번 제품의 가장 특별한 성분이라 할 수 있는 애플 비니저가 함유되어 있다. 풍부한 애플 비니저 성분이 물의 유엔 작용을 돕고, 반복적인 물의 사용으로 손상받은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해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진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 제품의 흡수를 도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피부를 준비시키는 부스터 역할도 톡톡히 한다. 상쾌한 느낌을 좋아하는 남성을 위한 프레쉬 타입, 부드러운 느낌을 선호하는 남성을 위한 소프트 타입 중 원하는 텍스처로 골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매력 포인트다.



남성 피부의 운영을 바꿀 두 가지 타입의 스킨케어

클라란스 맨이 제안하는 올 여름 남성들을 위한 완벽한 스킨케어 메이트, 프레쉬 모이스처 토너와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를 소개한다. 먼저 프레쉬 모이스처 토너는 상쾌함과 활력을 선사하는 산뜻한 타입의 토너다. 오일 컨트롤 기능으로 번들거림 없이 건강해 보이는 피부로 만들어줘 덥고 습한 날씨에 적합하다. 두 번째,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는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부드러운 타입의 제품. 건조한 피부에 최적의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줘 촉촉 건조한 날씨에 이상적이다. 실제로 클라란스 맨은 지난 4주간 93명의 아시아 남성에게 프레쉬 모이스처 토너를 사용하게 하고, 1백 1명에겐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를 사용하게 한 후 제품의 만족도에 대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이 만족도 조사에서 85% 이상의 남성이 프레쉬 &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 제품을 스킨케어 루틴의 스타터로 이상적인 아이템이라 답했다. 두 제품 모두 바르는 즉시 피부가 놀랍도록 촉촉하고 편안해진 것을 느꼈다고 응답했으니, 바쁜 현대 남성을 위한 필수 아이템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듯하다. 클라란스 맨의 모델로 활동중인 배우 이상윤 역시 요즘 이 제품에 푹 빠져 있다. 그는 "스케줄에 따라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춤 스킨케어 제품에 대한 갈증이 있었죠. 클라란스 맨의 '프레쉬 &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는 이 갈증을 말끔하게 해결해주었어요.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 피부에 활력을 주고 싶을 땐 산뜻한 프레쉬 타입을, 영양이 필요하다고 느낄 땐 소프트 타입을 선택해 스킨케어를 시작해요"라고 말하며 제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자, 이제 프레쉬, 소프트 중 당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토너를 선택하는 일만 남았다. 프레쉬 모이스처 토너 200ml 5만3천원,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 200ml 5만3천원. 문의 080-542-9052

에디터 권유진, 이지연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클라란스가 함께하는 쿠폰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클라란스 매장을 방문해 고객 카드를 작성해주시는 모든 독자분들께 애플 비니저가 함유되어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는 클라란스 맨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 5ml와 피부에 활기를 되찾아주는 리바이탈라이징 젤 12ml 샘플을 증정합니다.

◆ 증정품 클라란스 맨 소프트 모이스처 토너 5ml, 리바이탈라이징 젤 12ml ◆ 기간 2016년 7월 6일(수)~15일(금) ◆ 문의 080-542-9052 ◆ 증정매장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클라란스 매장
* 사진은 정품 이미지이며, 매장에서 제공하는 샘플과는 패키지와 용량이 다릅니다. * 증정품은 한정 수량으로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며, 1일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AQ
MELIORITY



7일의 피부 골든 타임을 사로잡다

AQ 밀리오리티 W 컨센트레이션 세럼

피부는 28일을 주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 중 피부의 생명력을 좌우하는 골든 타임 7일 24시간 농축된 데이&나이트 케어로 새롭게 태어나는 듯한 피부를 느껴보세요.

COSME DECORTE

현대백화점 안국점(02-3438-6118) 무역센터점(2F) 02-3467-8471 천호점 02-2225-8989 중동점 032-623-2151 판교점 031-5170-3194 신세계백화점 명동본점 02-310-5062 강남점(2F) 02-3479-6050 AK PLAZA 본점 031-703-3478 롯데백화점 본점(B1) 02-772-3157 잠실점 02-2143-7976 온라인쇼핑몰 Lotte.com/mall.shinsegae.com/Hmall.com/akmall.com/Lotteimall.com/cjmall.com/GSshop.com/ellotte.com 고객상담 080-568-3111

editor's Pick

간편히 휴대할 수 있는 미니 사이즈는 물론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피부와 머릿결을 지켜줄, <스타일 조선일보>가 제안하는 바캉스 필수 뷰티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라린스 인스턴트 라이프 립 컴포트 오일 레드메리 작년에 최초의 립 전용 트리트먼트 오일로 선보여 센세이션을 일으킨 립 컴포트 오일에 예쁜 베리 컬러를 담은 립 오일, 꿀을 듬뿍 뿌린 베리를 한입 베어 문 것처럼 입술에 유감처럼 애근한 빈자임과 오일의 촉촉한 보습력, 은은한 향기를 더한다. 또 즉각적인 플럼핑 효과를 입술을 도뿔하게 연출하고 끈적이지 않게 만들 거라 지낸다. 7ml 2인1천원, 문의 080-542-9052. *by 에디터 권유진*

클라리닉 미야 핏 핑스 진동 클렌저 세안을 하는 에디터는 여행 혹은 출장을 갈 때마다 클렌징 대바사를 챙기는 것도 만만치 않았다. 피부치 공감을 거부 다 자랄 정도로 크고 무게가 꽤 나중기 때문. 새로 출시된 미야 핏 오일 샴푸는 양중맞은 핸드 사이즈와 USB 포트도 충전까지 가능해 여행갈때 배낭을 수 없는 아이템이 될 듯하다. 29인원대, 문의 02-3497-9535. *by 에디터 이진*

해나 UV 미스트 쿠션 업그레이드된 쿠션 기술과 함께 더욱 세련된 패키지로 돌아온 해나 쿠션 팩트. 카바와 누드 타입으로 나뉘는 이 팩트는 한층 강화된 미네랄 클레이 워터를 사용해 피부 속 수분을 표면까지 끌어올려주고, 울트라 미끄러운 기술로 초박막 커버력을 자랑한다. 맑고 투명한 윤기를 연출하기에 만만함도 없다. 15g 4인1천원대리필 포함, 문의 080-023-5454. *by 에디터 이진*

샤넬도 더 가벼워 케어 아레노비탈 이드벤트스 스킨케어 샴푸 후 첫은 모발 에 바르는 기본 에센스와 달리, 마른 모발 상태의 두피에 3~4cm 간격으로 뿌린다. 그리고 나서 두피 전체를 손가락으로 고르게 마사지하면, 주성분이 모근 깊숙이 스며들어 가는 모발을 유발할 수 있는 불규칙한 모발 성장 주기를 정상화한다. 180ml 7인1천원, 문의 02-555-8839. *by 에디터 이진*

샤넬의 오 드 캠페뉴 바디 로션 상쾌하고 가벼운 보디로션으로 더은 여름철에 사용하기 좋다. 울트라 추출물과 비타민 성분, 독소를 제거하는 부처분까지 함유한 보디로션. 특히 다리 부종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어 여행 시 필수품이다. 150ml 1인1천원, 문의 080-549-021. *by 에디터 배미진*

술37 워터-폴 타일리스 워터 쉬 미스트 대나무 수액을 가득 함유해 수분을 충분히 채워주는 워터-폴 타일리스 워터 쉬 미스트. 분사 직후 미세한 수분 입자가 얼굴에 빠르게 스며들어 피부 속 평강을 완화해주는 작용이 인상적이다. 미스트의 용기가 작고 가벼워 휴대하기 용이하다. 60mlx2 3인1천원, 문의 080-023-7007. *by 아시스트 김수빈*

리프소제 세로진크 여름철 변질기에는 피부 상태가 고민인 이들에게 추천한다. 기름층이 미스트라는 별칭을 붙여 보습한 마무리감을 자랑한다. 특히 메이크업 수 정 전 얼굴에 가볍게 분사해주면 피부를 즉각적으로 산뜻하고 매트하게 마무리준다. 150ml 1인1천원대, 문의 080-344-0088. *by 아시스트 김수빈*

르네 휘테르 가피네 나리싱 마스크 럭셔리한 헤어 케어 제품으로 오랜 명성을 지니고 있는 르네 휘테르의 모발용 마스크 팩. 평소 헤어 마스크 팩을 즐겨 사용하는 데, 향기도 산뜻하고 끈적이지 않아 사용하기 편리하다. 즉각적으로 촉촉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100ml 2인1천원, 문의 02-543-7685. *by 에디터 배미진*

조르조 아메니 이브나니 프리아 모닝 클로우 밤 메이크업을 더욱 오래도록 유지하고 피부결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도록 돕는 스즈키어용 크림. 아침 스즈키어 단계에서 바른 후 메이크업을 하면 낮 동안 수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쫄쫄하게 유지된다. 피부에 수분감을 유지해주는 능력이 뛰어난 밤 타입 제품이다. 50ml 1인1천원, 문의 080-022-3332. *by 에디터 배미진*

알생로랑 꾸뛰르 바리아시옹 N3 파티 일생로랑 아틀리에의 아름다운 파브릭 컬러에서 영감을 받은 아이스톤 필레트, 핑크, 베이지, 브라운 등 한국 여성들이 가장 사랑하는 컬러를 무려 10가지나 담았다. 180도 오픈되는 거울, 메탈과 메탈릭 텍스처에 모두 적합한 부드러운 브라운시 역시 럭셔리 컬러의 면모를 아쉽게 잊을 수 있는 부분. 6g 1인1천원대,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권유진*

나스 스머지 프루프 아이스도우 베이스 아이 메이크업을 위한 탄탄한 밑바탕을 다져주는 제품. 부드러운 표올라를 눈두덩과 눈가에 얇게 바르면 눈 주름과 요철이 말끔하게 매워지며, 메이크업의 지속력과 발색력을 높여준다. 8g 3인1천원, 문의 02-6905-3747. *by 아시스트 김수빈*

타르 레 보아지 샌드 비너 고대 꿀과 식초를 섞어 만든 약용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용 비너. 신성 성분을 함유해 여행 중 찬제 시나 리네에 뿌리면 환근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손목에 가볍게 뿌려 향수로도 활용할 수 있다. 반작용을 할 때 물에 한두 방울 뿌리면 정화 효과가 뛰어나 여행의 짐을 늘여주는 특별한 아이템이다. 30ml 3인1천원, 문의 02-514-5167. *by 에디터 배미진*

CNP 프로폴리스 에나지 앰플 고영양을 담은 앰플이지만 끈적임이 없는 것이 특징. 피부결을 고루 정돈해주고 파운데이션을 밀착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매끈하면서도 건강한 윤기가 감도는 메이크업을 원할 때 빛을 발한다. 15ml 2인1천원, 문의 080-220-0707. *by 아시스트 김수빈*

이슬 하절 데오도란트 더욱 부드럽고 상쾌해진 이슬 특유의 아로마 향으로 거드랑이뿐 아니라 팔이 접히는 부분과 무릎 등에 뿌려 향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50ml 4인1천원, 문의 1800-1987. *by 에디터 이진*



real Experience

오랫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유명한 차안박화장품에서 피부 근본부터 건강하게 만드는, 스킨케어 이상의 리얼 엑스퍼-코스메틱 브랜드 CNP Rx를 출시했다. 차안박의 프레스티지 브랜드에서 독점적인 성분으로 완성한 안티에이징 에센스와 크림이 피부에 신세계를 열어줄 것이다.

CNP Rx, 처방이 화장품이 되다

'처방이 화장품이 되다'라는 슬로건으로도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느낌이 확실하게 다가온다. 차안박이 아심 차게 선보이는 CNP Rx는 차안박화장품의 검증된 노하우와 경험을 집약해 상상 그 이상의 토털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하는 프레스티지 브랜드다. 이 브랜드에서 주장한 '엑스퍼-코스메틱'이라는 개념이 신선한데, CNP 피부 전문가들이 오랜 연구와 엄격한 테스트를 통해 완성한, 실질적인 피부 개선 효과를 담은 화장품임을 의미한다. 단지 콘센트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 피부 근본부터 변화시켜 진정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임을 선보이는 것.

진정한 피부 개선을 위한 4단계 프로그램

CNP Rx의 제품들은 피부 전문가들이 개발한 브랜드답게, 피부 고민에 따라 케어해주는 4단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호(Prevention)-관리(Treatment)-유지(Maintenance)-케어(Post management) 단계를 통해 피부 상태에 맞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핵심 제품 두 가지를 소개한다면 단연 본격적인 안티에이징 케어를 해주는 관리(Treatment) 프로그램인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와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 먼저 피부 턴오버를 촉진해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속부터 탄력을 부여하는 '다발 스텝 케어'로 유명한 미라클 에센스는 건강의 척도가 되는 pH 밸런스 관리에 도움을 준다. 미라클 에센스의 핵심 성분인 PHA COMPLEX는 각질 제거의 대표 성분인 AHA보다 덜 자극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노폐 각질을 제거한다. 또 수분을 끌어당기는 성분 분자 덕분에 보습 기능까지 일석이조 기증 각질 제거 제품이 건조하게 느껴졌다면 이 에센스를 통해 촉촉하면서도 투명하고 탄탄한 피부를 가꿀 수 있다. 이렇듯 미라클 에센스의 턴오버 기능으로 피부 근본을 관리한 후에, 피부 노화 징후에 총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을 사용해 준다. 면 안티에이징 효과가 배가될 것. 주름 케어를 대표하였던 레티놀 성분보다 한 단계 진화한 레티날데하이드를 리포솜화한 레티날솜(RETINALSOME™)을 함유한 리바이브 크림은 함량이 높아진 피부에 탄력을 채운다. 이 제품은 레티날데하이드 성분도 고효율로 함유되어 특유의 주름살을 따는데, 햇빛에 노출되면 효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기에 주로 저녁에 사용하는 것이 효과를 더욱 극대화한다. 에센스에 함유된 PHA 콤플렉스와 크림에 담겨 있는 레티날솜이라는 두 가지 독보적인 핵심 성분으로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를 선사한다. 수많은 안티에이징 제품이 있지만 이렇듯 유요 성분을 안정화해 피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품은 찾기 어렵다. 특히 피부 전문가들이 직접 기획부터 연구 개발까지 참여해 만든 브랜드는 더욱 드물다. 에센스의 촉촉한 텍스처에 피부를 쫄쫄하게 감싸는 크림 제형,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었던 독보적인 활성 성분들의 만남이 호기심을 자극한다.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 오랜 경험이 녹아 있는 차안박의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의 제품은 현대백화점 안구정 분점과 롯데백화점 잠실점, 온라인 스토어인 대한대닷컴과 롯데몰에서 구입할 수 있다. CNP Rx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 50ml 9만원, CNP Rx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 40ml 15만원, 문의 www.cnp-rx.com, 080-023-7007 에디터 배미진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피부 개선 효과, 서른 초반이 훌쩍 넘어서니 이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특히 한 달 전에 다녀온 동남아 출장으로 피곤했기 때문이고 피부 톤 역시 얼룩덜룩해서 고민하던 차나, CNP Rx의 베스트셀러 제품인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와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을 사용해보았다. 평소엔 피부가 극도로 민감해 각질 제거제는 기피했었는데, 미라클 에센스의 경우 PHA 콤플렉스라는 복합 필링 성분을 함유해 피부 노폐 각질을 제거해주고 피부 속부터 탄력을 채우면서, 피부 pH 밸런스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는 설명에 안심하고 비를 수 있었다. AHA 성분은 더 다른 코스메틱처럼 자극이 되는 것일까? 우려했지만, 자극은커녕 수분 세럼을 바른 듯 아주 촉촉하게 스며드는 점이 인상적. 무엇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결이다. 피부가 눈에 띄게 보드러워지고 각질이 잠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이와 함께 사용한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은 쫄쫄한 오랜자취 텍스처의 제품으로, 부드러운 마무리감으로 피부 속까지 영양이 채워지는 느낌이였다. 레티놀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효능의 레티날데하이드를 안정화 시킨 CNP Rx만의 독자 성분, 레티날솜(RETINALSOME™)을 함유한 제품이니 그 효과는 보증된 셈. 매일 밤 얼굴, 데콜레까지 듬뿍 발라 마사지해주었다니 드라마틱한 변화는 아니지만 미세한 잔주름이 한결 유연해졌고, 이마는 광이 날 정도로 매끈해져 앞으로의 피부 변화가 더욱 기대된다. *by (스타일 조선일보) 에디터 권유진*



스킨 리바이브 비타 에이 콘투어 크림, 스킨 레주베네이팅 미라클 에센스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CNP Rx가 함께하는 스페셜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차안박화장품의 새로운 프레스티지 브랜드 CNP Rx 매장을 방문하는 독자분들께 피부 근원을 바꾸어 건강하게 빛나는 피부로 깨어나게 해주는 싸연피 알엑스의 스킨 레주베네이팅 4종키트를 증정합니다.
◆ 증정품 CNP Rx 스킨 레주베네이팅 4종 키트 ◆ 기간 2016년 7월 6일(수) ~ 7월 31일(일)
◆ 문의 080-023-7007 ◆ 증정 매장 현대백화점 안구정 분점(02-3438-6062), 롯데백화점 잠실점(02-2143-1797)
※ 증정품은 한정수량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으며, 1일 1인 1회 선착순으로 증정됩니다.



“뉴 7 시리즈는 ‘모던 럭셔리’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해요. 현대의 럭셔리리는 더 이상 소수가 향유하는 값비싸고 호화로운 물건이 아니에요. ‘럭셔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중적으로 변했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명품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는 브랜드는 시대를 리드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은 신뢰에서 비롯되죠.”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이 바라본 BMW 뉴 7 시리즈

the power of emotional Innovation

BMW 뉴 7 시리즈 캠페인의 일환인 'Progressive 7'. 혁신적인 리더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캠페인의 첫 번째 주자로 나선 배우 최민식에 이어 두 번째 리더로는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이 선정됐다. BMW 뉴 7 시리즈가 이뤄낸 혁신의 가치가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도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이다.

1, 4, 5 Progressive 7 캠페인의 두 번째 리더로 선정된 한복 디자이너 김영진과 BMW 뉴 7 시리즈. 2 손동작만으로 인포테인먼트를 제어하는 뉴 7 시리즈 제스처 컨트롤. 3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넓고 편안한 뉴 7 시리즈 뒷좌석. 4 BMW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뉴 7 시리즈. 5 BMW 뉴 7 시리즈. 6 BMW 뉴 7 시리즈.



전통 맞춤 한복 브랜드 ‘차이 김영진과 한복을 현대적 스타일로 재해석한 기성복 브랜드 ‘차이킴을 이끌고 있는 디자이너 김영진. 제주 유랑 매장으로 시작해 런던 셀프리지 백화점에서 러브콜을 받기까지, 그녀가 고수한 것은 전통을 지키되 한복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혁신을 거듭해야 한다는 믿음이었다. 그런 그녀가 차를 선택하는 기준은 엔진 성능이나 눈에 띄는 기능이 아니다. 브랜드 이미지나 신뢰도, 승객을 위한 배려에 비중을 더 많이 두는 편이다. BMW 뉴 7 시리즈는 그녀의 기준을 만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인간애를 바탕으로 빛은 모던 럭셔리, 휴식 같은 감성을 선사하다

“뉴 7 시리즈는 ‘모던 럭셔리’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차라고 생각해요. 현대의 럭셔리리는 더 이상 소수가 향유하는 값비싸고 호화로운 것이 아니에요. ‘럭셔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중적으로 변했죠. 그럼에도 오랫동안 명품으로 인정과 사랑을 받는 브랜드는 시대를 리드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은 신뢰에서 비롯되죠.” 그녀는 BMW가 보여주는 환경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 언급했다. “제가 타고 있는 뉴 7 시리즈는 BMW의 최고급 모델이에요. 어쩌면 호화로운데 그쳤을지도 모를 이 차는 효율적인 연비 실현을 위해 노력했어요. 차량 외관에 바람길을 만들어 공기저항을 줄이고 첨단 소재로 만든 차체를 통해 무게도 130kg이나 감량했다고 해요. 현재가 아닌 미래, 인간과 환경을 배려하는 BMW에 대한 제 신뢰가 틀리지 않았음을 느꼈죠.”

그런 신뢰감을 갖고 바라본 뉴 7 시리즈는 기대 이상으로 놀라운 연속이었다. 다양한 첨단 기능을 하나하나 체험해보니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즐거움이 더해진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얘기하는 뉴 7 시리즈의 즐거움은 ‘혁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추상적이면서 거창한 단어 같지만, 진정한 혁신은 생활과 밀착돼 있어요. 불편한 것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 궁극적으로 더 아름답고 운락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도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혁신은 인간에 대한 애정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뉴 7 시리즈를 타면서 그런 인간애가 느껴졌어요. 센터페시아가 운전자 쪽으로 살짝 기울어진 디자인만 봐도 그래요. 내가 운전할 직접하지는 않지만, 그 인근한 배려의 디자인 덕분에 차 안에서 보호받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BMW에서 얘기하는 ‘운전자’를 위한 차가 어떤 건지 여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전하는 감흥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로 차로 이동할 때 뒷좌석에 앉아 차 안에서 업무를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일이 많은 그녀에게 뉴 7 시리즈의 실내는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는 최적의 공간이다. 길이가 5m에 이르는 덕분에 피곤할 땐 비행기 퍼스트 클래스처럼 두 다리

를 쭉 뻗은 채 마사지를 받으며 쉬기에 좋고, 최고급 나파 가죽으로 마감한 시트의 부드러운 촉감을 반기지 않을 수 없다. 각종 첨단 편의 사양과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장치도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즐겁게 해주는 요소다. “저처럼 기계 조작에 익숙한 사람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BMW 제스처 컨트롤 덕분이죠. 3D 센서가 손동작을 감지해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오디오 음량을 조절하거나 전화를 수신할 수 있거든요. 천장에 달린 SOS 비상 호출 버튼도 만족스러웠어요. 유사시 BMW 통제 센터와 자동으로 전화 연결이 되고 비상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차 안에서 전화를 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어디서든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질과 혁신의 조화, 고유의 정수를 지키되 진화를 거듭하다

BMW 뉴 7 시리즈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뤄내면서도 고유의 본질을 지킨다는 점에서 그녀의 디자인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새로운 세대로 바뀔 때마다 진보된 모습을 선보이면서도 BMW가 지닌 본질인 ‘드라이빙의 즐거움’을 혼순간도 놓친 적이 없고, 그녀의 옷 또한 한복이 지닌 고유의 틀과 본질은 고수하되 전통에 머물러 박제돼 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녀의 철학이 가장 잘 드러난 대표적 아이템은 차이킴 컬렉션의 시그니처 디자인인 철릭(철릭) 원피스다. 무관들이 입던 철릭을 기본으로 해 남성의 옷을 여성 원피스로 색다르게 디자인한 것이다.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친 끝에 탄생한 철릭 원피스는 리넨이나 꽃무늬가 들어간 영국 리버티 원단 등 새로운 소재를 접목해 한복의 단아한 선에 화려하고 풍성한 느낌을 기미했다. 관복을 원피스로 재해석한 철릭부터 18세기 연안 김씨의 저고리를 변형한 리넨 재킷이나 16세기 신분 높은 여자들이 입던 차마에서 영감을 받은 메메이드 라인 한복 등은 초등학교부터 50~60대까지 사로잡았고,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각광받으며 한복 열풍을 몰고 왔다. 지난해 샤넬 패션쇼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킬리 스윈턴은 차이킴의 한복에 감탄하면서 구입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본질과 혁신의 조화를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김영진은 7월 12일 국립극장에 올리는 연극 <햄릿>의 공연 의상을 통해 또 한 번 혁신을 꿈꾸고 있다. 지금껏 수많은 햄릿 공연이 그랬듯 무작위로 해체하거나 재해석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연출하는 이 공연을 위해 그녀는 미니멀하고 동시대적인 옷을 선보일 예정이다. 평면 재단을 적용하는 한복이 오히려 서양식 의상보다 훨씬 미래적인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그녀에게 뉴 7 시리즈는, 한복만큼 예상치 못했던 근사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새로운 감성의 대상이다. 글 **이영주**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 부족을 연상케 하는 유니크한 말 모티브가 돋보이는 글래디에이터 샌들 1백만원대 **발렌티노 가리버니**, 비버트한 오렌지·블루 컬러의 조합과 투명과 메탈 소재가 만난 발등의 장식 이 야국적인 느낌을 선사하는 T스트랩 샌들 1백만원대 **디올**, 화이트 굽 뒤에 위트 있는 눈 알라스트를 다룬 모자이크 패턴의 T바 로 힐 샌들 1백만원대 **켄달**, 열대식물 모티브를 스트랩으로 활용한 센스가 돋보이는 T스트랩 샌들 1백만원대 **에르메스**, 플라워 비즈 장식과 글러디 디테일로 화려함을 더한 샌들 1백29만원 **마리니 by 마이본**.

Sandal scandal

휴가를 앞두고 비치 웨어를 준비했다면, 그다음은 페디큐어를 한 예쁜 발을 드러낼 샌들 차례다. 수영복에도, 우아한 비치 드레스에도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는 서머 샌들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투박한 나무 굽, 빈티지한 스타드 장식, 레오파드 패턴의 조합이 멋스러운 스트랩 샌들 2백20만원 **보타가 베네타**, 주얼 패치워크 장식의 피어 샌들 힐 1백30만원대 **루이 비통**, 뽀족한 스타드로 장식해 강렬하고 대담한 디자인이 특징인 샌들 1백73만원 **구찌**, 시공스러운 원형 구슬 장식과 알타펠라 패턴, 투명한 굽을 더한 슬링백 샌들 71만6천원 **토리 버치**, 플라워 프린트의 웨지힐 샌들 1백10만원대 **로저 비비에**, 에디터 권유진

발렌티노 가리버니 02-543-5125 **디올** 02-513-0300 **에르메스** 02-544-7722
마이본 02-6947-1270 **보타가 베네타** 02-515-2717 **루이 비통** 02-3432-1854
구찌 1577-1921 **토리 버치** 02-515-4080 **로저 비비에** 02-6905-3370 **켄달** 02-2056-9022



시계방향으로 우회정: 이나스틴에 이베링, 김수민



the Ocean commitment

흥미진진한 바닷속 이야기는 블랑팡이 지켜온 세계다.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를 선보인 블랑팡은 지난 6월 2일 호림아트센터에서 바다 환경 보호에 대한 오랜 철학을 담은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전시를 개최하며 그 멋진 철학을 서울에서 펼쳐 보였다.

바다와 블랑팡의 깊은 인연

프리미엄 브랜드가 남다른 것은 높은 가치를 지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전시 소개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1953년 첫 선을 보인 전설적인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Fifty Fathoms)다. 블랑팡은 이 다이버 워치를 통해 얻은 세계적인 명성으로 바다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이들이 독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더욱 특별하다. 세익스피어의 <템페스트(The Tempest, 폭풍)> 속 에우리피데의 노래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이름으로, 패덤은 본래 수심을 측정하는 단위인데, 1패덤은 1.83m를 의미한다. 50패덤조는 당시 다이버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수심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깊은 물속에서도 방수가 가능한 시계라는 의미를 담은 것. 처음으로 피프티 패덤즈를 선보였을 당시 블랑팡의 CEO이자 다이버 장-자크 피슈테르(Jean-Jacques Fischer)의 열정으로 탄생한 이 제품은 지금까지도 수많은 브랜드가 모방하는 다이버 워치의 교과서처럼 인정받고 있다. 방수를 위해 크라운을 이중으로 밀폐 처리한 것이나 잠수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베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것은 당시 다이버 워치의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결한 시도였다. 다이버 워치에 관련된 다양한 특허를 취득한 것 역시 피프티 패덤즈의 독보적인 면이다. 또 독일과 미국 등에 군용으로 시계를 공급했던 블랑팡의 역사 속에서 피프티 패덤즈는 지속적인 진화를 거듭해 지금까지 시계 마니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런 인기에 힘입어 블랑팡은 지난 수년간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Blancpain Ocean Commitment)'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바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 다각도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블랑팡에 가장 중요한 행사인 것. 2015년 3월 바젤월드에서 시작으로 미국, 러시아, 호주, 홍콩, 일본, 대만 등 전 세계를 통해 선보이고 있는 이 전시는 블랑팡 다이버 워치의 역사뿐 아니라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자원해온 해양 탐사와 생태계 보존 프로젝트의 가치를 일러는 의미 깊은 행사다. 매년 스위스 바젤월드에서도 블랑팡의 이러한 전시를 만나볼 수 있는데, 드디어 서울에서 이 뜻깊은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 것.



1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한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 전시장. 2 수중 촬영 전문 포토그래퍼가 촬영한 바닷속 이미지. 3 행사장 전경과 다이버 바닷속을 유영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4, 8 블랑팡 오션 커미트먼트를 기념하는 첫 번째 한정판 워치,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워백. 5 1953년 블랑팡의 첫 번째 다이버 워치 피프티 패덤즈의 스토리가 실린 신문. 6 1953년 첫 번째 피프티 패덤즈를 착용하고 다이버 방에 나선 모습. 7 행사장 입구는 블랑팡의 상징적인 베젤로 장식해 눈길을 끌었다.



오션 커미트먼트, 해양 생태계를 위한 블랑팡의 진심

사진과 영상으로 구성된, 블루빛으로 가득한 이 전시는 총 4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빈티지 피프티 패덤즈와 역사적인 사진이 함께 모여 있는 'Birth of Legend'로 시작한다. 최초의 모던 다이버 워치와 이 시계들이 획득한 특허 증명서, 역사적으로 의미심장한 사진을 통해 브랜드의 헤리티지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다. 'Art in Ocean'에서는 2008년부터 해마다 블랑팡과 협업해 바다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는 수중 포토그래퍼의 다양한 사진을 모아서 선보이는 사진집 '피프티 패덤즈 에디션'에 수록된 사진들을 전시를 통해 선보인다. 희귀 생물들의 사진을 통해 해양 환경 보호의 중요성과 생태계 보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섹션으로, 이번 전시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한정판 다이버 워치와 컴플리케이션 워치를 함께 볼 수 있다는 것도 인상 깊은 점이고, 이번 서울 전시를 위해 세계적인 수중 촬영 포토그래퍼 애런 웡(Aaron Wong)이 서울을 찾았다는 것도 의미 깊은 일이다. 전시장에서 자신이 직접 촬영한 수중 사진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해양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어진 'Ocean Exploration' 섹션에서는 블랑팡이 후원하는 심해 생태계 탐사를 위한 '곰베사 프로젝트(Gombessa Project)'와 더 넓은 바다를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해 보존하기 위한 '원시 해양 탐사(Pristine Seas Project)' 등의 스토리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 한국에서 이러한 내용의 전시가 개최된 적이 없기에 더욱 새로운 인상을 남겼다. 천정의 리운드형 스크린을 통해 심해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The Circle' 역시 오감을 자극하는 큐레이션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블랑팡 전시 프로젝트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한 한정판 제품 오션 커미트먼트 바티스카프 크로노그래프 플라워백(Ocean Commitment Bathyscaphe Chronographe Flyback) 워치를 함께 전시해 바다와 블랑팡의 깊은 인연, 그리고 이러한 캠페인과 전시를 더욱 오랜 기간 동안 지속해 나갈 것임을 각인시켰다. 세계 최초의 시계 브랜드라는 독보적인 하스스토리를 지닌 블랑팡에 피프티 패덤즈라는 다이버 워치는 그 역사를 빛나게 한 결정적인 워치 컬렉션이다. 이 컬렉션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을 때 블랑팡은 더욱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해양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이러한 전시들이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며 바다를 지키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고, 이제 아시아의 주요 도시로 옮겨오는 서울에서도 그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독보적인 워치 브랜드인 블랑팡의 뜻깊은 오션 커미트먼트 전시가 바다의 아름다움을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기대해본다. 문의 02-3149-9597 에디터 배미진



오션 커미트먼트 블루빛



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키 색상 가죽과 메탈 스톱트 장식의 아우라진 샌들 1백18만원
베르사체, 부드러운 캐주얼 색상의 피아넬 가죽으로 고급스러움을 다한 라비오 2 샌들 1백만원
살비토레 페라기오, 블랙 색상의 신발한 디자인으로 어느 때나 매력하기 좋은 가죽 샌들 1백만원
에르메스, 고급스러운 그레이 컬러의 가죽 스트랩 샌들 1백48만원 브리오니.

Walk the summer

클래식한 치노 팬츠와 캐주얼한 버뮤다팬츠, 어디에나 멋스럽게 매치할 수 있다. 품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름을 위한 새로운 스타일을 완성해줄 남성 서머 스트랩 샌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카무플라주 패턴 패브릭에 나비를 수놓은 유니크한 메리의 샌들 1백23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발목까지 감싸는 스위스 스킨 버블 샌들 1백47만원 자형시, 코르크 소재 플랫폼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벨크로 디테일의 베이비시드 샌들 95만원 루이 비통, 블루 컬러의 밑창이 돋보이는 슬리퍼 샌들 1백만원 디올, 신축한 엘로 질라 라바슬로 포인트를 준 스포티한 샌들 73만원 프라다, 에디터 이지연

베르사체 02-6905-3802 살비토레 페라기오 02-2140-9666 에르메스 02-544-7722 브리오니 02-516-9686 발렌티노 가리버니 02-543-5125 자형시 02-517-7560 루이 비통 02-3432-1854 프라다 02-3442-1830 디올 02-3480-0104

아시아티크 캄수빈

Black and White Week

매년 몽블랑의 신제품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 소개하는 '블랙 앤드 화이트 위크'가 올해는 브랜드 창립 1백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 특별한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몽블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임 카말과 함께 몽블랑이 걸어온 1백10년의 발자취를 되짚어보았다.

한국을 처음 방문했다고 들었다. 한국을 찾은 소감은?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길에 차창을 통해 예스러운 건축물과 고층 빌딩이 나란히 들어선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경계 없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유럽은 뮤지엄에서 사는 것과 같은 분위기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려 하고 모든 게 그대로예요. 그 때문에 이런 모습들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누군가 저에게 무언가를 완성하면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새로운 것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고작 3년밖에 머물지 않은 이곳, 한국에서 그 말에 대한 긍정적인 예를 찾았습니다.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린 마인드가 바로 제가 아시아 시장을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사실 이전의 몽블랑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다.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이전의 몽블랑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는 존재를 사람들에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3년 전 몽블랑에 합류했지만, 대중 앞에 나선 게 이번이 처음인 것 같군요. 일단 제가 하는 일은 메종의 현주소와 과거,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팬과 시계, 가죽 스포츠 등의 신제품을 기획하고 구상할 땐 그 안에 스토리와 브랜드의 헤리티지를 담아 의미 있는 제품을 만들고 하죠. 하나의 제품에 정성과 헤리티지, 그리고 최고의 품질을 한데 어우러지게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역할이죠. 올해 선보인 다양한 신제품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팀을 대표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작년에 이어 국내에 두 번째로 블랙 앤드 화이트 위크가 1백10주년 기념까지 더해 더욱 풍성해졌다. 향후 더 지원하고 싶은 컬렉션이 있는지?** 신제품을 한자리에서 소개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기보다, 1백10주년이라는 의미를 더해 브랜드의 역사와 개혁 정신 등을 더욱 부각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이 루즈 앤드 화이트 컬렉션이 아무래도 가장 파워풀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바로 이 제품에 장식된 서펜트(serpent), 뱀 디자인은 몽블랑의 탄생 1백10주년을 상징하는 것으로 가족과 시계 커플 고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백10주년 기념 컬렉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디자인 테마가 뭘이냐.** 영성, 풍요, 치유와 의미를 지닌 뱀은 주얼리 & 워치 메종의 주요 모티브로 활용되기도 했는데, 뱀에 대한 몽블랑만의 해석

은? 올해 창립 1백10주년을 맞아 이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단순히 숫자에만 집착하지 않고 몽블랑의 역사가 담긴 아이코닉을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예전에 사용한 서펜트 모양의 클립을 발견했죠. 단순히 그때 사용했기 때문에 그 모양을 차용한 게 아닌, 몽블랑 메종 창립 당시의 그 시대, 모든 것이 각박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는 개혁 정신이 여기저기에서 뿔어져 나오던 그 시대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메종이 탄생한 그 시(1900년대 초반)에는 개혁 정신이 단지 몽블랑만의 정신이 아닌 그 시대의 정신이었습니다. 새로운 예술 사조와 철학 등이 각박하던 시기, 그리고 그 중심에는 당시의 예술가인 에른스트, 구스타프 클림트가 있었습니 다. 이들은 예술뿐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파리에서 활동한 알폰스 무하는 당시 그래픽 아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이후 건축, 가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주기도 했죠. 이런 시대적 상황과 시대적 사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서펜트는 몽블랑 내부에서도 당시 사용된 타이포그래피와 외부에서도 문화 예술적으로 아르누보 양식과 함께 가장 사랑받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몽블랑 창립 1백10주년 기념을 서펜트로 장식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항상 팬을 몰아 자고 다닐 텐데, 오늘은 어떤 제품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루즈 앤드 화이트 컬러 컬러 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항상 똑같은 펜을 가지고 다는 건 아니고, 평소에는 드로잉을 많이 하기에 그럴 때는 몽블랑의 서펜트 펜이나 몽블랑 M의 아트 파인라이너를 즐겨 사용합니다. 또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마스터스틱을, 어떤 때는 헤리티지 컬렉션 등 다양한 것을 사용하는 편입니다. **몽블랑 하면 아무래도 만년필이 가장 먼저 떠오르기도 한다. 필기야말로 가장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자극하는 일 아닌가 싶다. 변화되는 디지털 시대에 맞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몽블랑은 지난 1백10년 동안 핸드라이팅 컬처를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많이 쓰는 질은 중 하나도 필기 문화가 계속될 것 같은가?인데, 항상 답은 '당연하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전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녀는데, 여행 중 영감을 떠오르면 펜스타일 노트에 스케치를 한 후, 디지털 디바이스를 이용해 사진을 디자인 팀에 전송합니다. 그럼 그들이 사진을 잡아 저에게 PDF 파일을 보내주고, 전 그 위에 PC용 터치 펜을 이용해 코멘트를 적어 다시 보내죠.



1 몽블랑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임 카말. 2 몽블랑의 블랙 앤드 화이트 위크 행사장 내부. 몽블랑의 2016년 스토리 맨으로 꾸었다. 3 브랜드 창립 1백10주년을 맞아 선보인 루즈 앤드 화이트 컬러 펜. 에디터 이지연

이제 바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만나는 접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는 아날로그만 사용한다, 나는 디지털만 사용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날로그가 디지털보다 더 좋거나,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더 좋다는 말 역시 하기 어렵고요. 개개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 두 가지의 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듯 비즈니스 환경이 예전과 많이 달라졌고, 이에 우리 메종은 이 두 가지를 함께 향유하는 삶을 만들어내고 이들의 접점에서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솔루션을 제시해줄 것입니다. 핸드라이팅에 대한 몽블랑의 의미와 집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그 바탕에는 이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계속되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디터 이지연



Dream Boutique

서울을 대표하는 명품 거리, 청담동의 오랜 랜드마크였던 까르피에 플래그십 부티크가 기존 자리에서 위치를 옮겨 까르피에 메종 청담이라는 이름으로더욱 크고 웅장한 플래그십 스토어로 새롭게 오픈했다. 특별한 케어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갖춘 이곳에서 보석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예술로 승화시킨 까르피에의 세계로 당신을 초대한다.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 까르피에 메종 청담
더욱 크고 더욱 럭셔리해졌다. 역시 까르피에다. 1층을 포함해 4개 층으로 이루어진 이곳은 하이 주얼리 & 파인 워치메이킹 플래그십의 위용을 한껏 드러낸 건물이다. 한국 전통 기옥인 한옥의 처마와 문살을 연상시키는 격자무늬의 골드빛 외관이 인상적인데, 아나나 다름없는 프랑스로 파리 루드라 페(Rue de la Paix) 거리에 있는 전설적인 까르피에 맨션과 한국적인 요소를 조화롭게 접목해 탄생시킨 건축물이라고 한다. 한국 시장에서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까르피에 고유의 품격과 한국의 전통이 곳곳에 녹아든, 오로지 한국을 위한 아름다운 공간을 탄생시킨 것. 1층 입구에 자리 잡은 기와지붕 형태의 디딤돌, 한국 전통 문양과 자개, 한지 박자를 사용해 한국적인 감성을 풍기는 VIP 프라이빗 뷰잉 룸, 1층과 2층, 3층 테라스를 둘러싼 한옥 문살 데코, 그리고 최상급 한국 전통차와 다과를 제공하는 VIP 케이터링 서비스 역시 섬세함과 특별함을 엿볼 수 있는 요소들이다. 더불어 이곳에선 주얼리, 시계, 최상급 장식품과 액세서리로 가득 찬 까르피에의 아름다운 세계를 여유롭게 둘러보고 탐미할 수 있다. 그동안 파리, 뉴욕, 런던 등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까르피에 플래그십 부티크의 품격을 드디어 한국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매장 입구에 들어서면 2층 천정에서 1층까지 이어진 샹들리에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또 눈앞에 아름다운 까르피에의 주얼리로 가득 찬 쇼 케이스가 펼쳐지는데, 까르피에의 정수를 모두 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브랜드를 대표하는 시그니처 컬렉션부터 다채로운 주얼리 & 워치 컬렉션을 한자리에서 모두 만날 수 있다. 더불어 까르피에의 워치 컬렉션으로 꾸민 2층에는 까르피에의 독보적인 워치메이킹 기술을 엿볼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이곳에서 주목해야 하는 공간은 하나 더 있다. 바로 VIP 고객의 요청에 따

라 프라이빗 샵룸으로 변신할 3층 공간이다. 이곳은 VIP 고객을 위한 행사는 물론, 여유롭고 프라이빗한 쇼핑을 위한 VIP 라운지로 활용된다. 기존 매장에서도 선보인 프리포즈 이벤트, 생일 파티 등 VIP 고객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1층 안쪽 프라이빗 톨과 연결되는 비디의 정원과 3층에 마련된 럭셔리하고 아름다운 야외 정원에서 즐기는 샴페인 한잔은 이곳에서의 시간을 더욱 즐겁고 품격 있게 만들어줄 것이다. 까르피에 코리아 김씨라 사장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VIP 고객이 서울을 찾을 때, 까르피에 메종 청담에 꼭 들러보고 싶을 것이다. 이곳이말로 한국의 전통과 세계 최고 메종인 까르피에의 품격을 함께 즐기며, 서울이 왜 현재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도시인지 새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하이 주얼리와 한정판 컬렉션을 만날 수 있는 공간
까르피에 메종 청담이 더욱 의미 깊은 것은 바로 하이엔드 주얼리와 한정판 컬렉션을 독점적으로 소개하는 공간이라는 점 때문이다. 유럽 왕실과 인연이 깊은 까르피에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인 수많은 이트피스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왔다. 이곳에서는 팔기 어렵지 않은 가격에 판 매한 스크롤 티아라, 까르피에의 인클루젼을 착용한 그레시 클립의 영화 속 모습과 케이트 마들린 결혼식 날 착용한 까르피에 티아라 등 까르피에의 전통을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치료와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전시해 까르피에의 아름다운 세계를 고객에게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몇 피스와 제작한 한정판 컬렉션을 까르피에 메종 청담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착용할 수 있다고 하니, 구매 목적이 아니라라도 이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경이롭고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바로 1566-7277 에디터 권유진

1 2층 천정에서 1층까지 이어진 샹들리에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2 까르피에 메종 청담의 1층. 3 까르피에의 워치메이킹 기술을 엿볼 수 있는 워치 존인 2층. 4 한옥의 처마와 문살을 연상시키는 건물 외관이 돋보이는 까르피에 메종 청담. 5 3층에 위치한 야외 라운지.



slow life in Paradise

“이곳에서는 무조건 릴렉스하세요. 그저 편히 쉬고 즐기면 됩니다.” 최근 들은 말 중 이보다 더 달콤한 말은 없었다. 그저 폭 쉬라니! 한 달간 이 낯선 섬에 갇히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속세와 먼 조용하고 한적한 곳, '식스센스 콘다오(Sixsenses Con Dao)' 리조트에서 보낸 꿀 같은 3일,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쉬울 만큼 진정한 휴식과 재미를 경험한 이곳에서의 잊지 못할 추억이 지금 펼쳐진다. *photographed by choi nam yong*

진정한 럭셔리와 정수, 식스센스 콘다오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서 50분가량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콘다오 섬은 예상외로 아주 조용했고, 아직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은 외딴 섬마을을 연상케 했다. 흔히 럭셔리 리조트의 성지라 불리는 몰디브, 발리, 보라보라처럼 관광객이 가득한 화려한 휴양지는 아닌 것이다. 활처럼 굽은 해안 도로를 따라 차로 5분 정도 달리니 저 멀리 코끼리 모양의 섬을 등에 지고 마치 자연에 뿌리내린 나무처럼 자리 잡은 식스센스 콘다오 리조트가 눈에 들어온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50채의 목조 풀 빌라로 이루어진 식스센스 콘다오는 소박하고 때 묻지 않은 섬의 풍경과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고 있었다. 아나나 다름까 이곳에서 만난 식스센스 콘다오 지배인 존은 콘다오 섬의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리조트를 설립했고, 이를 짓는 데 쓰이는 모든 자재와 가구, 소품은 이곳 주민들이 생산한 것만을 사용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식스센스는 개발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땅을 선택했고, 그리고 이곳에서 거칠지만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지역 문화와 어우러져 하나가 된 것이다. 이는 비단 식스센스 콘다오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 베트남, 오만, 태국, 몰디브, 스페인 등 세계 곳곳에서 럭셔리 리조트를 운영하는 식스센스 그룹이 추구하는 모토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미끄러질 듯 매끈한 대리석 대신 베그닥 소리를 내는 목조 바닥을, 골드 외벽이 아닌 베트남 곳곳에 버려진 나무 문으로 꾸민 외벽을 선택해 소박하지만 우아하고 품위 있게 진정한 럭셔리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점을 조용히 알리고 있는 것이다. 흔히 럭셔리 리조트에서 사용하는 특정 브랜드의 생수 대신 현지에서 정화한 신선한 물을 제공하는 것, 나아가 이 지역에서 생산한 신선한 식재료만 사용한다는 점 역시 지역 문화를 존중하며 진정한 정신적인 럭셔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철학과 가치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관계자는 “맑은 공기와 더불어 베트남에서는 보기 드문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함께하는 이곳은 아토피가 있는 손님의 피부가 건강해질 정도로 깨끗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간입니다”라고 여담을 덧붙인다.

유기농 제철 재료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델리 코너와 어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키즈 클럽, 해변에 위치한 레스토랑을 지나 이곳에 머무는 동안 모든 편의를 제공해줄 버틀러(개인 집사)의 안내를 받으며 3일간 지낼 빌라로 이동했다. 빌라까지 가는 길 곳곳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탄사가 터져 나왔고, 빌라에 들어서자 이는 급기야 환호성으로 바뀌었다. 규모 큰 프라이빗 수영장장과 함께 2층엔 메인 침실이, 1층엔 거실과 요리를 할 수 있는 주방, 세탁 시설, 아이와 유모가 묵을 수 있는 침실이 마련된 빌라를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원 베드룸의 단층 빌라가 있었던 것. 이는 대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찾아도 개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하면서 리빙 룸과 프라이빗 풀에 모여 오후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별장과도 같은 공간이다. 물론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홀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 온 싱글 여행객은 물론 오로지 둘만을 위한 로맨틱한 여행을 계획하는 커플을 위한 원 베드룸 빌라도 있으니, 혼자 외도 좋고, 둘이 외도 좋고, 여럿이 외도 즐거운 리조트라 할 수 있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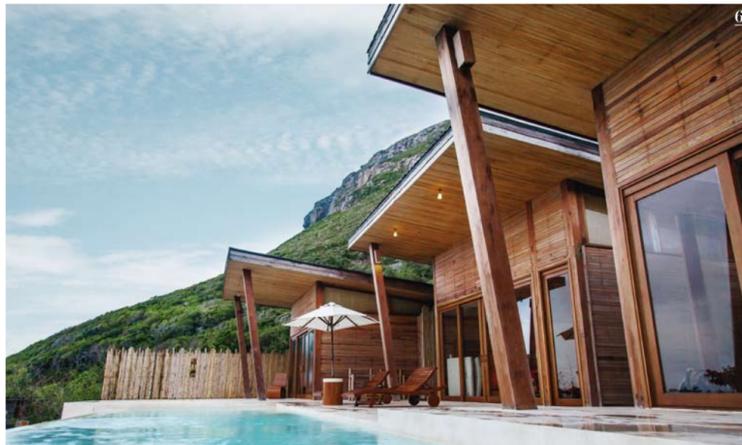
3



4



5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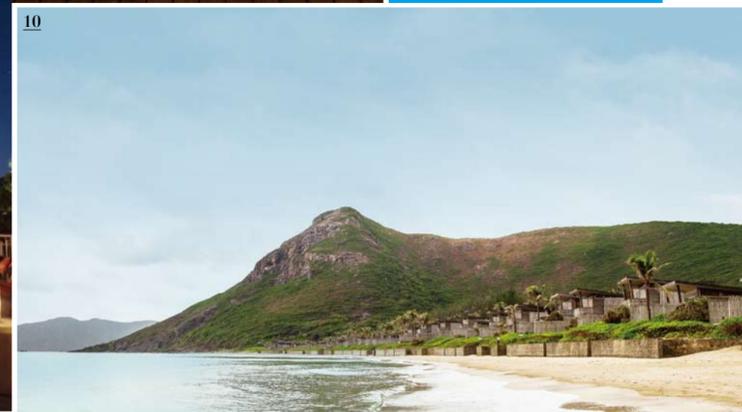
9



8

SPECIAL PROMOTION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맞춤 여행을 설계해주는 에이투어스는 2016년 10월 31일까지 식스센스 콘다오에 체류하는 고객 중 환감 또는 진감을 맞이하는 부모님을 동반한 고객에게 3코스 디너를 풀 빌라에서 프라이빗하게 제공한다. 더불어 부모님께서는 60분의 마사지와 함께 선물과 케이크를 증정하고, 체크인 시 방에 어유가 있을 경우 방을 한 단계 또는 두 단계 업그레이드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10

다. 방 구성구석에는 식스센스 콘다오의 세심한 배려와 정성이 묻어나는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다. 자연을 생각해 림의 에메니타는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따로 챙겨 가지 않아도 될 만큼 기본 에메니타와 더불어 모기향과 모기 퇴치 스프레이, 입욕 소금, 우비, 부채, 체스 판 등 많은 것을 갖추고 있다. 필요에 따라 룸 안의 물품 요청 체크리스트를 통해 요가 매트, 손톱깎이, 수면 안대, 독서 안경, 복부를 따뜻하게 해줄 찜질용품 등 필요한 것은 모두 룸으로 가져다준다. 베딩을 포함해 객실의 모든 리넨은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제작해 보기에는 울퉁불퉁하고 거친 듯하지만 피부에 닿는 감촉은 그토록 편안할 수 없다. 리조트 여행을 계획할 때 룸만큼이나 중요하게 따져볼 것은 수영장의 컨디션이다. 이곳의 수영장 물은 자연 그대로의 물을 정수해 내보내고 순환 시스템을 통해 깨끗하게 관리한다. 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증명하는 것은, 이곳 관계자의 말도, 홍보 자료도 아닌 수영장에서 유유자적 헤엄치는 개구리들의 모습이었다.

오감 그 이상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경험

식스센스 콘다오가 조용하고 한적하다고 해서 지루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준비된 액티비티 프로그램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지루하게 보낼 수도, 근육통이 생길 정도로 액티브하게 보낼 수 있으니 말이다. 도착한 첫날, 요리사 모자를 쓰고 전문 셰프에게 베트남 전통 음식을 배운 쿠킹 클래스부터 탁 트인 바다가 전면에 펼쳐진 통유리창 앞에서 프라이빗하게 수련한 요가 클래스, 섬세한 터치로 이루어진 스파 프로그램, 더불어 콘다오 섬의 재래시장부터 역사적인 사원과 박물관, 항구 등을 3시간가량 둘러본 콘다오 섬 투어, 마지막 날 밤에 배불리 먹은 바비큐 파티까지, 3일간 알차게 시간을 보냈다. 그것뿐인가. 낮은 파도에 부드럽게 흔들리는 스탠드 패들 보드 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누워 있는 바람에 선명할 수영복 자국이 남기도 했다. 이 밖에도 자전거로 섬을 한 바퀴 돌아보는 투어 프로그램과 마운틴 트레킹, 스쿠버다이빙 등 색다른 재미와 경험을 선사할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취향대로 고르기만 하면 된다. 우기인 5월에서 10월까지의 동남아 관광의 비수기로 꼽히지만, 식스센스 콘다오에서는 뜨거운 햇살과 먹구름이 하루에도 수십 번 다투듯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 비가 쏟아지는 프라이빗 풀에서 수영하는 짜릿하고 상쾌한 기분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니까. 더불어 빌라의 나무 천장 위로 타닥타닥 떨어지는 빗소리와 개구리의 울음소리가 빛어낸 화음 아래, 폭신한 이

1 프라이빗 풀에서 감상하는 콘다오 섬의 아름다운 바다 풍경. 2 해변에 위치한 바다 전망 레스토랑.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맡으며 셰프의 특별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3 스리 베드룸 빌라의 중심이 되는 프라이빗 풀. 4 포근한 베드에서 맞이하는 탁 트인 바다 풍경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곤 한다. 5 전문 셰프에게서 배우는 쿠킹 클래스는 이곳에서 꼭 즐겨야 할 액티비티 중 하나이다. 6 목조로 이루어진 스리 베드룸 빌라의 모습. 7 초시 코너의 하이리프트, 쌀국수 코너. 8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다양한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다. 9 방바닥에 든 발을 배경으로 영화를 감상하는 특별한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10 코끼리 모양의 섬을 등에 진 식스센스 콘다오 리조트의 전경.

SHOWROOM



사벨 화인 주얼리

티파니

티파니 키 컬렉션 티파니는 한국 고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키 컬렉션' 제품을 국내에서 최초로 소개한다.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은 키 컬렉션의 제품 중에서 인켄트 프릴로즈 펜던트, 인켄트 드래곤볼라이 펜던트, 그리고 티파니 비토리아를 각각 20개씩, 총 60개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며, 제품마다 고유의 시리얼 넘버를 각인해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547-9488

사벨 화인 주얼리 레탈 리스망 드 사벨 사벨 화인 주얼리는 파리에서 공개한 '레탈 리스망 드 사벨' 컬렉션을 국내에 소개했다. 태강의 강렬한 파워를 표현한 이번 컬렉션은 보석이 선사하는 눈부신



몽블랑



블랑팡

광채와 매혹적인 주얼리의 자태가 시선을 압도한다. 갤러리 사벨 화인 주얼리 부티크에서 한 달간 선보인다. 문의 02-3442-0962

몽블랑 몽블랑 1858 매뉴얼 스톤 세컨드 몽블랑은 미네라바 매뉴팩처의 유산에 대한 존경을 담아 제작한 '몽블랑 1858 매뉴얼 스톤 세컨드'를 소개한다. 1백58년 역사의 미네라바 크로노그래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의 제품 중 하나로, 클래식함이 느껴지는 디자인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44mm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 다이얼, 그리고 스틸 브라운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문의 1670-4810

그라프 파리 살롱 그라프는 럭셔리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 방돔 광장에 브랜드를 대표하는 매장인 '그라프 파리 살롱'을 오픈했다. 세계적인 건축가 피터 미노가 디자인한 이 매장은 비스포크 장식과 특별히 제작된 가구로 채워 18세기 파리의 화려함과 궁정의 모습을 표현했다. 은은하게 빛나는 푸른빛의 녹색, 격자무늬 바닥, 청동 스퀘어 등 우아하면서도 화려한 요소로 채운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파리 제1 살롱에서는 그라프의 정인 장식과 고유의 디자인으로 완성한 다채로운 타임피스를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2256-6810

블랑팡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장 블랑팡은 다양한 워치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는 신세계백화점 본점 부티



블랑팡

크를 오픈했다. 블랑팡의 역사를 담고 있는 르 블라시스의 블랑팡 광장과 동일한 콘셉트로 꾸민 부티크로, 체리 우드 소재 벽장과 가구가 따뜻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투르비옹, 마닛 리피터, 페퍼추얼 캘린더 등 다양한 아티팩이 입고되어 있으며, 부티크를 방문하는 고객에게는 커피, 위스키 등 웰컴 음료를 제공한다. 문의 02-310-5295

론진 신세계백화점 론진 매장 리뉴얼 오픈 론진은 고객의 편의를 위해 리뉴얼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의 론진 매장을 공개했다.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정수를 보여주는 론진의 신세계백화점 본점 매장은 워치메이킹 트레이디션, 엘레강스, 스포츠, 그리고 헤리티지 등 다양한 컬렉션을 구비하고 있다. 국내에 총 다섯 파스만 입고된 리미티드 에디션 '롤링' 1/100th 콘퀘스트' 또한 만나볼 수 있어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310-1597

까르띠에 까르띠에 매점 창담 까르띠에는 브랜드의 위용을 드러내는 플래그십 스토어 까르띠에 매점 창담을 새롭게 오픈한다. 프랑스의 대저택 건축양식인 호텔 파티큘리에(Hotel Particulier) 형식에 따라 꾸며졌으며, 한국적인 미를 기이해 완벽한 조화가 보여주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고객을 위한 특별한 케어와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이엔드 주얼리와 한정된 컬렉션을 독점적으로 만날 수 있다. 문의 1566-7277



까르띠에



시몬스



에르메스



김동희의 바다

시몬스 케노샤 홈 프란시스 컬렉션 시몬스는 무더운 여름에도 완벽한 휴식을 제공해줄 베딩 컬렉션 케노샤 홈 프란시스 컬렉션을 제안한다. 바이오 워싱 처리한 천연 라벤를 사용한 것이 특징으로, 가벼운 무게와 부드러운 감촉을 자랑한다. 이불 커버, 매트 커버, 그리고 베개 커버로 구성되며, 전국 시몬스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구매 가능하다. 문의 1899-8182

BMW 코리아 3 시리즈 M 스포츠 에디션 BMW 코리아는 스포터형 주행 성능과 감각적인 스타일이 돋보이는 '3 시리즈 M 스포츠 에디션'을 출시한다. 18인치 경량휠, 내외장 M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고, 8단 스포츠 자동변속기 등 주행 성능을 강화했다. 328i M 스포츠 에디션에는 다크로터 천연 가죽 시트와 고급스러운 가죽을 더했다. 문의 080-269-2200

에르메스 카페 마담 애플망고 빙수 에르메스 카페 마담은 무더운 여름을 맞아 애플망고 빙수를 새로운 메뉴로 추가했다. 얼린 우유를 곁들여 갈아 만든 얼음 위에 당도 높은 애플망고를 가득 올려 제공한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망고 스무디도 함께 출시하며, 8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한다. 문의 02-546-3643

김동희의 바다 명품 수산물 편집집 국내산의 고품질 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김동희의 바다'(www.gamdongbada.com)가 오픈했다. 지역별로 유명한 국내산 수산물을 검증된 생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해주는 시스템을 통해 건강하고 신선한 국내 먹거리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1833-5554

LIFESTYLE

FASHION

에르메네제르도 제너 시어셔 슈트 컬렉션 에르메네제르도 제너는 시원한 여름을 위한 '시어셔 슈트 컬렉션'을 선보인다. 천연 울과 실크를 혼용한 소재인 시어셔 패브릭을 사용해 무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고 쾌적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 블루 컬러의 슈트 룩과 네이비, 체크 패턴의 시어셔 재킷으로 출시한다. 문의 02-3785-0285

에스카다 델라나 에스카다는 클래식한 무드가 우아한 풍격을 선사하는 데이 드레스 '델라나'를 올여름 룩으로 제안한다. 매 시즌 새로운 컬러로 선보이는 델라나는 신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루엣이 여성스러운 매력을 극대화하는 아이템이다. 단정함 느낌을 버진 프론트 싱글 플라츠 버전과 더 디테일을 기미한 버전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443-5760

브루넬로 쿠차넬리 스웨이드 슬림 브루넬로 쿠차넬리는 내추럴한 컬러 매치가 돋보이는 스웨이드



에르메네제르도 제너

에스카다

브루넬로 쿠차넬리

드 슬림을 새롭게 출시한다. 부드러운 스웨이드와 페이디드 데님 소재의 조합이 모던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스웨이드에는 고무 밴드를 더해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문의 02-3448-2931

쁘랭팡 체크 블라우스 뿌랭팡은 내추럴하면서도 경쾌한 체크 패턴이 돋보이는 블라우스를 소개했다. 얇고 가벼운 소재를 사용해 시원한 느낌을 선사하며, 자연스러운 색상과 루스한 실루엣이 페미니한 스타일을 연출해 준다.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다양한 룩에 활용하기 제격이다. 문의 02-460-0358

셀린느 트리플드 백 셀린느는 2016 S/S 시즌을 맞아 선보인 '트리플드 백'을 소개했다. 여유가 느껴지는 실루엣, 길게 늘어뜨린 가스다린 끈 등 셀린느의 특징적인 디자인 요소가 돋보이며, 천연 카프 스카를 사용해 부드러운 촉감을 선사한다. 37기 기능적인 수납공간을 갖춰 실용성을 높였다. 문의 02-540-0486

프라다 2016 F/W 남성 광고 캠페인 프라다는 '현재의 순간은 과거를 회상하는 무대와 같다'라는 테마를 담은 2016 F/W 남성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영화 '대니쉬 잡에서 열린 배우 아네 레드메인'을 광고 모델로 발탁했으며, 그의 단호한 포즈와 강렬한 눈빛으로 프라다가 제시하는 용감하고 독창적인 사고를 지난 현대의 남성상을 완벽하게 표현했다. 문의 02-3442-1830

구찌 DIY 서비스 구찌는 고객의 개성과 스타일을 반영하는 'DIY(Do It Yourself)' 고객 맞춤 서비스를 실시한다. 처음으로 선보이는 DIY 서비스를 통해 구찌의 대표 아이템인 디오나시스 백을 활용해 고객의 취향에 맞춰 임브로이더리, 트리밍, 하드웨어, 모노그램 이니셜 등 원하는 옵션을 추가할 수 있다.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구찌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1921

토리 버치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 오픈 토리 버치는 쇼핑의 편의를 돕는 한국 공식 온라인 스토어를 론칭한다. 2010년 서울 창담 플라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면서 국내에 자리 잡은 토리 버치는 큰 사랑을 보내준 한국 고객에게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온라인 스토어를 오픈한 것. 웹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호환되며, 이 웹사이트를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욱 편리한 쇼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02-515-4080



ARTISTIC COMMERCIAL

버버리의 도전은 계속된다. 브랜드의 정인 정신, 창의성, 그리고 영국의 젊은 층이 이끌어가는 문화와 감성을 녹여낸 버버리의 2016 광고 캠페인.

'트렌드'의 대명사이자 영국 패션을 대표하는 버버리는 혁신적인 시도를 통해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매년 4회 진행해온 컬렉션 회수를 대폭 줄여 남성과 여성을 통합한 컬렉션을 연 2회 선보이고, 소 저주 캠페인에 오른 의상을 매장에서 바로 만나볼 수 있는 '웨어이 메이트 투 오더'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 것. 또 지난 3월 서울에서는 30여 명의 아이코닉한 인물들이 그들의 스타일로 트렌드코드를 재해석한 '히트 오브 더 트렌드' 프로젝트를 통해 트렌드코드의 무한한 매력을 보여주었다. 이렇듯 다양한 방식과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매년 새로운 혁신적인 모습을 선보이고 있는 버버리에서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마리오 테스티노(Mario Testino)의 사진과 아티스트 루크 에드워드 홀(Luke Edward Hall)의 일러스트로 구성된 2016 광고 캠페인을 공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소의 오프닝 모델로 2016 버버리 컬렉션의 시작을 알린 에디 캠페인(Eddie Campbell)과 배우 칼럼 터너(Callum Turner)가 광고 모델로 활약했다. 2011년 버버리 광고 캠페인 이후 두 번째로 호응을 맞춘 이들은 패치워크를 테마로 전개한 2016 버버리 컬렉션의 의상을 완벽하게 소화했고, 포토그래퍼 마리오 테스티노의 감각을 더한 강렬한 비주얼을 통해 영국 특유의 젊은 무드와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한 면모를 보여준다. 버버리는 이번 광고 캠페인에도 또 하나의 특별한을 더했는데, 영국 출신 인터리어 디자이너 겸 신인 아티스트 루크 에드워드 홀과 다양한 컬래보레이션 아티스트가 바로 그것이다. 2016 컬렉션에서 처음 선보인 패치워크 백을 메인 오브제로 사용, 레오하드 프린트의 송이(가죽, 뽕가죽, 체크 패턴의 코트 패브릭 등 다채로운 소재가 조화를 이루는 패치워크 백의 매력을 5가지 다른 버전으로 담았다. 또 작업 방식에서 스포츠웨어인 그는 여러 가지 소재를 이어 붙인 패치워크 백의 특성을 살려 워터칼라, 분필, 오일 파스텔 등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 캠페인 모델인 칼럼 터너의 인물화, 버버리 컬렉션 아이템, 그리고 캠페인 사진을 불러 기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함께 선보였다. 버버리의 크리에이티브 총괄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베일리 "는 '루크는 버버리 캠페인의 컬래보레이션을 통해 그 능력을 보여준 재능 있는 아티스트다. 그의 이러한 다양한 일러스트레이션과 마리오 테스티노의 파워풀한 사진은 컬렉션의 미학적 면을 잘 보여준다'라고 전하며 이번 협업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했다. 영국을 대표하는 패션 브랜드와 브리티시 아트의 만남으로 탄생한 결과물은 런던에 위치한 121 리젠트 스트리트 플라그십에서 6월 말까지 진행한 이벤트를 통해 전시되며, 이번 캠페인의 핵심적인 요소인 패치워크 백은 버버리 온라인 스토어(burberry.com)와 버버리 서울 플라그십 스토어에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80-700-8800

1 광고 모델인 영국 배우 칼럼 터너의 캠페인 이미지인 루크 에드워드 홀의 아티스트, 2 아티스트 루크 에드워드 홀이 그린 패치워크 백 일러스트 작품, 3, 4 다양한 소재로 패치워리한 패치워크 백.

JEWEL

BEAUTY

에스티 로더 뉴트리셔스 바이오텀러 8™ 컬렉션 에스티 로더는 건강한 광채 피부로 가꾸려는 스킨케어 라인 '뉴트리셔스 바이오텀러 8™'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석류 추출물, 망고스틴, 슈피 베리 등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으로, 피부 표면의 에너지를 생기를 향상시킨다. 로션, 미스트, 그리고 림팩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440-2772

코스메 데코르테 비타 드 레브 리미티드 에디션 코스메 데코르테는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토너 비타 드 레브를 대용량으로 한정 출시한다. 세이지, 페퍼라, 와일드 타임 추출물, 로즈메리 워터 등 안색 개선에 도움을 주는 허브 성분이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꾸준다. 7월 한 달간 전국 백화점 매장과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다. 문의 080-568-3111

지미추 올라잇 플라워 지미추는 대담하고 매력적인 향이 매력적인 여성용 향수 지미추 올라잇 플라워를 새롭게 선보인다. 구조적인 느낌의 보틀이 눈길을 끄는 이 향수는 싱글한 애플과 사과 만다린이 어우러진 프루티 향으로 사적로 로즈, 그레이프프루트 꽃, 그리고 재스민의 싱그러움 꽃향기로 이어지다가 부드러운 여성적인 마스크 향으로 마무리된다. 문의 080-800-8809

사벨 디엔선 드 사벨 마스크라 사벨은 하

나의 제품으로 최상의 효과를 선사하는 미스카라 디엔선 드 사벨 마스크라를 출시한다. 속눈썹을 길고 풍성하게 채워주는 효과와 지속력이 뛰어나며, 속눈썹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짙은 블랙 컬러, 부드러운 초콜릿 브라운, 강렬한 블루 컬러 등 총 3가지 컬러로 구성된다. 문의 080-332-2700

CNP차연변화장품 닥터레이 밀크 토닝 필 프로그렘 CNP차연변화장품은 투명하고 맑은 피부로 가꾸려는 스킨케어 제품 '닥터레이 밀크 토닝 필 프로그렘'을 소개한다. AHA, BHA 등 7가지 성분을 배합해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토닝과 필 효과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3.5ml 용량의 밀크 토닝 필 4개와 밀크 토닝 마스크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문의 080-220-0707



CNP차연변화장품



코스메 데코르테



지미추

사벨